

共產主義理論과 實際

(찌 나 리 오)



目 次

1. 머릿말	5
2. 共產主義 基本哲學과 實際	12
3. 共產主義 政治理論과 實際	54
4. 共產主義 經濟理論과 實際	134
5. 맺는말	2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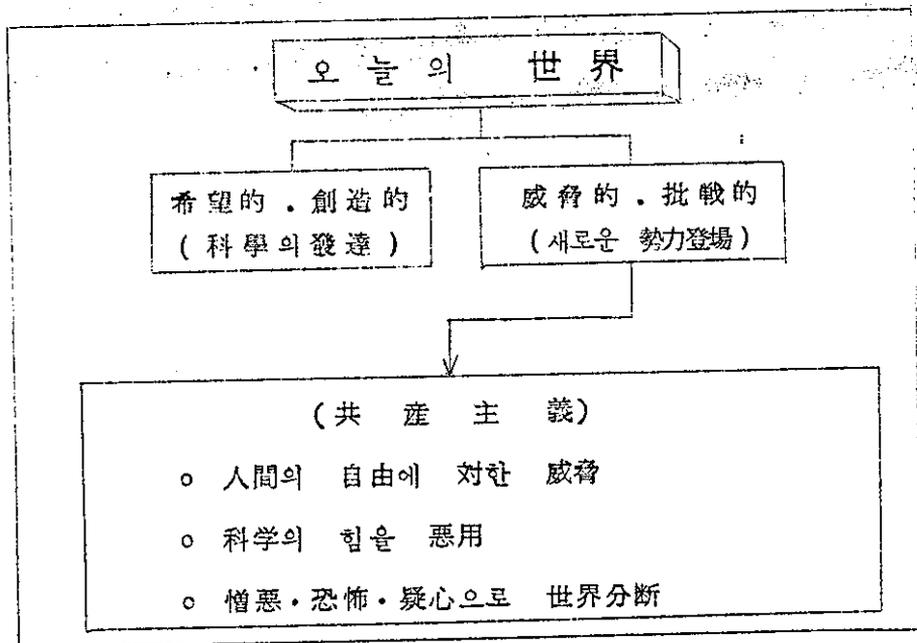
共產主義 理論斗 實際

平和統一問題研究所

① 共産主義 理論과 實際

지금부터 共産主義의 理論과 實際에 關한 講義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講義案은 平和統一問題研究所가 各계 專門家の 意見을 綜合하고 그것을 다시 各 大學 國民倫理 担当教授의 諮問을 받아 完成한 것으로서 그 主要內容은 共産主義의 哲學, 政治, 經濟 그리고 結論等 네 領域으로 構成되어 있습니다.



② 머릿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人類歷史上 가장 希望的이고 創造的인 世界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그에 못지않게 가장 威脅的이고 挑戰的인 世界입니다.

希望的이고 創造的인 世界라 함은 지난 半世紀동안 이룩해놓은 科學의 成果가 人類의 全歷史 發展過程을 通해 이룩해 놓은것 보다 훨씬 화려하고 많은 進展을 보였기 때문이요, 反面에 가장 威脅的이고 挑戰的인 世界라 함은 最近 半世紀동안 새로운 勢力이 登場하여 人間이 成就한 모든 自由를 威脅하고 科學의 힘을 平和보다는 世界를 破壞하는 方向으로 惡用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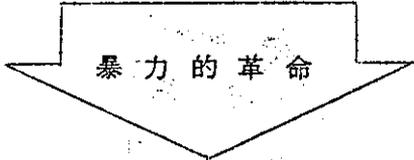
더군다나, 이 勢力은 마치 커다란 바윗돌이 이편과 저편을 完全히 차단하고 있는 것처럼 중요와 공포와 의심으로 世界를 分斷해 놓고 있습니다.

그 代表的인 例가 東西獨을 가로막는 「베르린」의 障壁이요, 우리 강토의 허리에 가로질린 155「마일」에 걸친 철책인 것입니다.

그것은 故意的으로 人間의 즐기찬 真理에로의 接近을 폐쇄하고 이웃을 알고 理解하려는 것을 妨害하고 個人의 自由와 尊嚴性을 否定하기 爲해 세워진 人爲的인 障壁인 것입니다.

하나의 幽靈 卽 共產主義라는 幽靈이
「유럽」을 徘徊하고 있다.

(1848. 共產黨 宣言)



暴力的革命

世界平和의 威脅, 自由体制에 對한 挑戰

③ 共產主義란 幽靈

共產主義 理論의 始祖인 「마르크스」와 「엔겔스」는 1848年 「共産黨宣言」에서 “하나의 幽靈, 即 共產主義라는 幽靈이 「유럽」을 徘徊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들이 불러 일으킨 이 幽靈은 오늘날 그 말이 쓰여졌던 當時보다 더욱 事實性을 갖고 全世界에 걸쳐 徘徊하고 있으며 그 것이 나타나는 곳에는 반드시 對立과 反目, 음모와 分裂, 그리고 숙청등 무서운 재앙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共産黨宣言에서 “「프롤레타리아」들은 쇠사슬 以外에는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다. 勝利의 世界만이 있다. 모든 나라의 勞動者들이여 團結하라!”고 외쳤던 暴力煽動의 회오리 바람은 「마르크스」나 「엔겔스」가 豫測하지 못했던 帝政 「러시아」에서 「레닌」에 依하여 共產主義革命의 「도구마」로 變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모스크바」를 拠点으로 일어난 이 世界革命의 妄想은 「東部」유럽, 中國大陸, 그리고 太平洋에 隣接한 東南亞에서 그 거센 바람을 일으키고 韓國의 6. 25와 같은 悲劇을 招來했으며 그 可恐한 破壞의 本質은 只今도 變質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 世界平和에 重大한 威脅인 것이며, 自由體制에 對해서는 深刻한 挑戰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共產主義라는 「幽靈」은 도대체 어떤 敎理를 믿고 우리의 生活과 우리의 將來까지를 威脅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마르크스」理論의 源泉的 背景

第 1 源泉

- 「헤에겔」의 弁證法
- 「포이에르바하」의 唯物論

第 二 源泉

- 空想的 社會主義理論
- 「프랑스」의 社會主義運動經驗

第 三 源泉

- 「英國」의 政治 經濟學
- 「리카도」의 勞動 價値說

④ 「마르크스」理論의 源泉的 背景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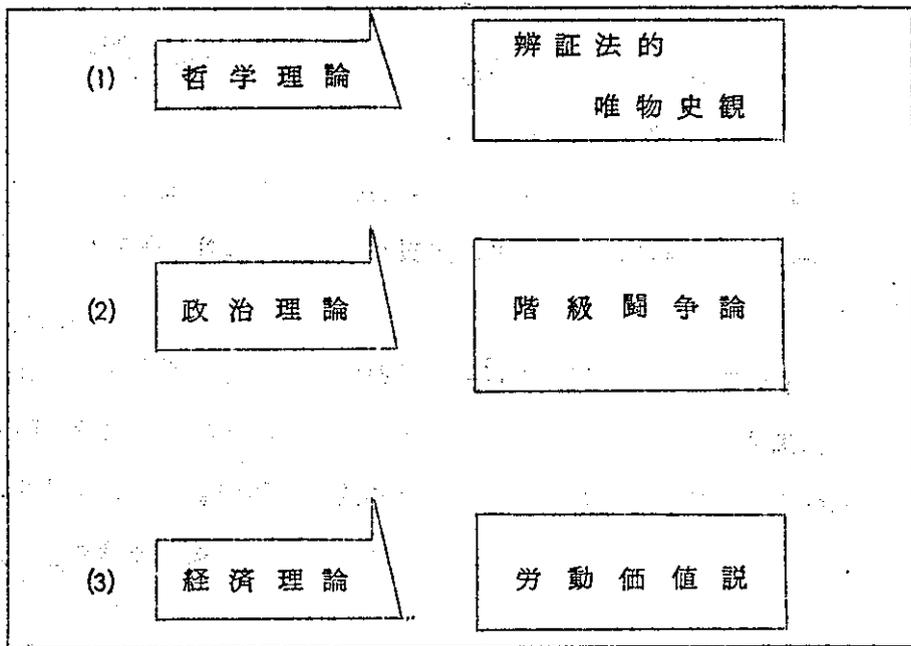
「칼·마르크스」는 共產主義 理論의 源泉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共產主義는 勿論이요, 社會主義도 「칼·마르크스」가 創造한 새로운 「아이디어」는 결코 아닙니다.

그는 當時까지의 많은 사람들이 發展시켜 놓은 理論들을 발췌하여, 그것들을 그 나름대로 취합, 變質시킨 데에 그의 공로가 있을 뿐입니다.

여기에 「마르크스」主義 理論의 源泉的 背景을 要略해 보면, 첫째, 獨逸의 古典哲學입니다. 特히 「헤겔」의 三段階 辨証法과 「포이엘·바하」의 唯物論에서 絶對的인 影響을 받았습니다.

둘째, 「프랑스」를 中心으로 한 空想的 社會主義 理論과 그들의 實際的인 運動經驗입니다. 「마르크스」는 이를 바탕으로 自己의 獨特한 「階級鬭爭論」을 展開하였던 것입니다.

셋째, 英國에서 最初로 體系化한 政治經濟學입니다. 「아담·스미스」의 影響도 컸지만 보다 決定的인 影響을 준 것은 「리카도」의 「勞動價值說」인 것입니다.



⑤ 「마르크스」理論의 源泉的 背景 (2)

要件에 「마르크스」主義는 以上の 基本概念을 綜合한 것으로, 哲學은 「辨證法的 唯物史觀」이며, 政治理論은 「階級鬭爭論」을 비롯하여 「暴力革命論」, 「프롤레타리아獨裁論」等이며, 經濟理論은 「勞動價值說」 및 「剩餘價值說」에 根拠한 「資本主義 崩壞論」과 「帝國主義論」等을 그의 主要骨子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共產主義의 基本哲學」과 「政治理論」, 「經濟理論」의 세 가지 側面에서 考察하기로 하겠으나 共產主義 理論은 哲學, 政治, 經濟 및 社會에 걸쳐서 密接하게 聯關된 學說에 基礎를 둔 世界觀이기 때문에, 共產主義는 全體로서 考察되어야 하며 그 一部分의 어떤 要素를 별도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點을 미리 말해두는 바입니다.

①

共產主義 基本哲学斗 實際

⑥ 共產主義 基本哲学과 그 實際

그러면 첫 講座로서 「共產主義 基本哲学」과 그 實際에 對하여 說明드리겠습니다.

共產主義 基本哲學

弁證法的 唯物論

萬物의 變化

正 概念
(Thesis)

反 概念
(Anti-thesis)

合 概念
(Syn-thesis)

變化의 基礎

「 헤겔 」

「 마르크스 」

整 神

物 質

⑦ 共產主義 基本哲學 (1)

共產主義의 基本哲學은 크게 「辨證法的 唯物論」과 「史的 唯物論」으로 集約하여 說明할 수 있습니다.

「辨證法的 唯物論」은 모든 歷史, 思想, 存在의 原動力이 衝突 또는 矛盾으로 부터 出發한다는 「矛盾의 原理」에 따라 發展시킨 「헤에겔」의 辨證法과 「포이엘 .바하」의 唯物論을 独自の 立場에서 體系化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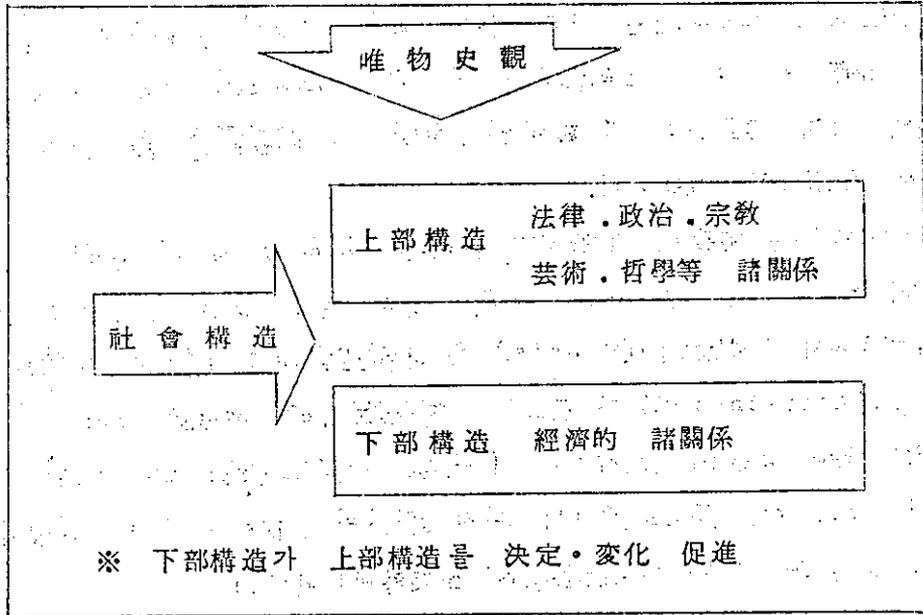
「헤에겔」은 宇宙에 存在하는 萬物은 恒常 變化하고 있다는 前提下에 낡은 것은 없어지고 새로운 것은 登場한다고 보았습니다.

即, “하나의 「概念」(Thesis)은 이것으로부터 發展된 「다른 概念」(Anti-thesis)과 猛烈히 衝突하고, 이 衝突로 부터 두 概念의 좋은 要素를 包含하는 「새로운 概念」(Syn-thesis)이 이루어진다. 이 「合概念」이 다시 하나의 「正概念」으로 發展되고 그것은 또 다른 「反概念」과 衝突하게 된다.”

이러한 衝突과 生成過程을 거쳐 世界는 보다 完全하게 發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헤에겔」은 이러한 理論을 人間에게 適用시켰을 때에 「精神」(Geist)이란 것을 생각해 냈으나, 「마르크스」는 「헤에겔」의 辨證法을 逆用하여 萬物의 變化의 基礎는 精神이나 意識이 아니고 物質的 環境이라고 하여 結局 「存在가 意識을 決定한다」는 教理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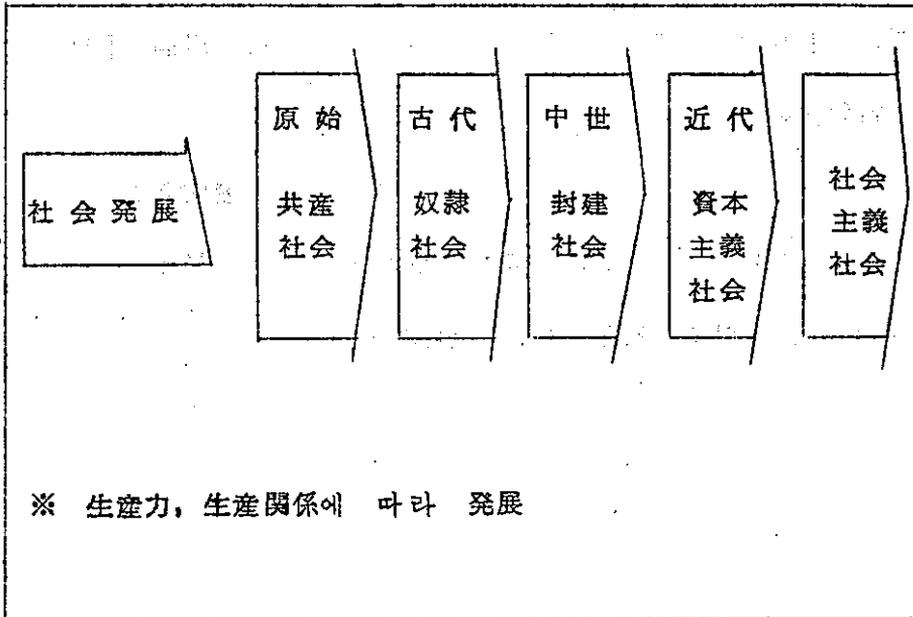
이것이 「唯物辨證法」이라고 불리우는 「마르크스」의 共產主義 基本哲學인 것입니다.



⑧ 唯物史觀 (2)

그리고 「唯物辨證法」을 歷史에 適用하는 것이 所謂 「마르크스」의 「唯物史觀」입니다.

「마르크스」는 社会生活의 基礎로서 經濟的 生産關係를 下部構造로 보고 그것이 政治, 法律, 宗教, 藝術, 哲學 등의 諸關係인 社会의 上部構造를 決定하고 變化시켜 나간다고 하였습니다.



⑨ 社会 发展

또한 人間社会는 生産力과 生産關係에 따라 段階적으로 發展한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人類歷史를 物質的 生産力의 發展過程이라고 前提하고 原始共產社会, 古代奴隸社会, 中世封建社会, 近代資本主義社会 그리고 生産手段을 共有하는 社会主義社会를 거쳐 窮極적으로는 「能力에 따라 일하고, 必要에 따라 消費하는」 共產主義社会로 段階적으로 發展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共產主義 基本哲學 批判

虛構性과 矛盾性

- 1 歷史發展의 原動力으로서 內的 對立과 矛盾을 主唱
- 2 人間生活의 決定要素로서 精神보다 物質을 重視
- 3 社會의 下部構造 (經濟的 生産關係)가 上部構造 (法律的, 政治的, 「이데올로기의」)를 決定 變化시킨다고 主張
- 4 人類歷史開發을 生産力과 生産關係로 評價

⑩ 共產主義 哲學批判

以上 共產主義 哲學의 概要를 說明드렸읍니다만, 그 骨子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歷史發展의 原動力으로서 內的 對立과 矛盾을 내세우고 있다는 點

둘째로, 人間生活의 決定要素로서 精神이나 意識보다 物質을 重視하고 있다는 點

셋째로, 社會의 下部構造가 「이데올로기」의 上部構造를 決定하고 變化시켜 나간다고 보고있는 點

넷째로, 人類歷史를 生産力과 生産關係에 따라 段階的으로 發展한다고 主張한 點들입니다.

以上 네가지 骨子를 中心으로 그의 理論的 虛構性과 矛盾性을 하나 하나 指摘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批判 I

歷史發展의 原動力으로서의 矛盾

矛盾概念

○ 反對의 概念과 混同

○ 「矛盾」關係 → 非現實的 觀念의
世界에서만 成立

共産圈의 哲学
論争 (소련)

○ 「矛盾」辨證法의 修正問題 提起

○ 社会主義 段階下의 矛盾 解消問題

① 批判 I 歷史發展의 原動力으로서의 矛盾 (1)

첫째, 歷史發展의 原動力으로서 內的 對立과 矛盾을 내세우고 있다는 事實입니다.

「마르크스」는 矛盾의 概念을 反對의 概念과 混同하고 있습니다. 論理的인 概念으로서는 矛盾과 反對는 嚴格히 區別되는 것입니다.

例컨데 男女關係라든가, 電氣에서 말하는 「플러스」나 「마이너스」는 決코 矛盾關係가 아닌 反對關係이며, 이 두가지는 서로 補完關係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意味의 矛盾關係란 非現實的 觀念의 世界에서만 成立될 수 있는 것입니다. 1950年代의 共產圈內部에서도 이 問題를 두고 哲學論爭을 야기시킨 事實이 있습니다. 當時의 소련의 哲學者들은 矛盾이 發展의 原動力이라는 辨證法을 根本적으로 修正하여야 할 必要性 때문에 社會主義段階에서는 矛盾이 解消되어야 한다는 것을 骨子로 한 社會主義下에서의 矛盾問題를 크게 提起하였던 것입니다.

「矛盾」辨証法の虚構性

- 共産政權 樹立 段階에서만 適用
- 「矛盾」辨証法 論理에 의거 共産政權 否定 問題가 提起
- 平和共存論 ⇨ 「矛盾」辨証法の 포기

⑫ 批判 I . 歷史發展의 原動力으로서의 矛盾 (2)

또한 矛盾辨證法의 虛構性은 共產主義者들의 政權樹立段階에서만 適用되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權力を 장악한 後에도 矛盾의 論理에 따르면 共產政權은 조만간 부정 당해야 함당하기 때문입니다.

「후르시초프」가 主唱한 平和共存論도 嚴密한 意味에서 矛盾의 辨證法을 포기한 結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萬一 共產陣營과 自由世界와의 關係를 敵對的 矛盾의 關係로 보았다면 論理的으로 「후르시초프」의 平和共存論은 成立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批判Ⅱ

人間生活 決定要素로서의 「物質」

共產主義者

理論的

實際的

○物質의 必然的 決定論
主張
(唯物論)

○革命意識 및 精神고취
○革命的 「이데올로기」
의 重大性 強調

自家修正論

○物質과 意識의 相互 關係
○唯物論의 事實上 포기

⑬ 批判Ⅱ. 人間生活 決定要素로서의 「物質」(1)

둘째 共產主義者들은 理論的으로 人間生活의 決定要素로서 精神이나 意識보다 物質을 先次的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만 實際에 있어서는 오히려 「革命意識」이나 「革命精神」을 고취하거나 革命的 「이데올로기」의 重大性を 強調하는 等 矛盾된 行動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그들 스스로가 「物質의 必然的 決定論」을 스스로 否定하는 結果를 招來한 것입니다. 따라서 共產主義者들은 1950年代를 전후하여 「物質과 意識의 相互關係」를 主張하는 自家修正論을 提起하였습니다. 結果的으로 「意識도 物質에 影響을 준다」고 생각하게 된 以上 唯物論은 이제 그들 自身에 依해 포기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唯物論 害毒性

共産黨 支配의 合理性 正當化

- 人間의 自律性, 「휴머니티」, 自由 否定
- 人間의 非人間化 造成
- 人間이 없는 地獄 形成 (체코-코스르크)
- 人間의 天賦的 權利 박탈

⑭ 批判Ⅱ 唯物論의 害毒性(2)

뿐만아니라 唯物論의 害毒性은 무엇보다도 非人間化를 促進하여 共産黨支配의 合理性을 正当化시키고 있다는 事實입니다.

오늘날 共産主義者들은 人間의 自律性和 「휴머니티」와 自由 그리고 能動的 主体性を 全面的으로 否定하고 人間의 非人間化를 造成시키고 있습니다.

「체코」의 哲學者「코시크(Kosik)」는 良心의 自由마저 박탈하는 共産主義야 말로 人類의 「유토피아」가 아니고 人間이 없는 地獄이라고 규탄한 바 있습니다. 더우기 人間의 天賦的 權利인 宗教를 迷信이요 마취제요 아편이라 非難하며 科學이 發達하면 宗教가 自然히 消滅된다고 主張하였으나 現實은 이와 正反對인 것입니다.

批判Ⅲ

下部構造가 上部構造를 「決定」, 「變化」

唯物史觀

下部構造

生産道具

關係

決定
變化

上部構造

政治的, 法律的,

「이데올로기」的關係

㉞ 批判Ⅲ. 經濟的 下部構造가 其他의
上部構造를 「決定」, 「變化」(1)

셋째로 共產主義者들은 社會의 下部構造가 上部構造를 決定하며
變化시켜 나간다고 主張하고 있습니다.

即 앞서 說明드린 바와 같이 下部構造인 生産道具나 生産關係가
上部構造인 政治的, 法律的, 「이데올로기」의 關係를 支配하는 것이
라고 主張하고 있습니다.

非 現 實 性

○ 人類 精神文化의 唯一 決定要因
→ 生產關係

○ 現實的으로

同一經濟條件下 → 相異文化發展

相異生產條件下 → 同一文化享有

①6. 批判Ⅲ 經濟的 下部構造가 其他의
上部構造를 「決定」·「變化」 (2)

이같은 「마르크스」 理論의 非現實性은 人類의 精神文化의 唯一
無比한 決定要因으로 生産關係만을 強調하고 있다는 點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現實적으로 볼때 그들의 主張에 따른다면 同一한 經濟條件 밑에
서 사는 사람들이 各己 다른 文化를 發展시키고 또 相違한 生産
條件下에서도 同一한 文化를 享有할 수 있으며 그밖에 同一한 生
産關係에도 不拘하고 資本主義나 共產主義, 社會主義等 異質的인 思
想이 存在하고 있다는 것을 說明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共產主義者 主張

- 「부르조아」革命段階→下部構造 先行
- 社会主義 革命段階→上部構造 先行

唯物史觀의 虛偽性

- 共產主義 政權 奪取의 合理性 正当化

⑰ 批判Ⅲ. 經濟的 下部構造가 其他의
上部構造를「變化」 「決定」 (3)

더우기 共產主義者들이 「부르조아」革命段階에 있어서는 經濟的인 下部構造를 政治的인 上部構造보다 앞서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다음 段階인 社會主義革命段階에 있어서는 「프롤레타리아」政治革命等 上部構造를 優先해야 한다고 主張합니다.

여기에 共產主義哲學이 政權을 獲得하기 爲한 政權哲學이라는걸 쉽게 알수 있는 것입니다.

問 題 点

○ 生産手段→人間의 精神的 活動의

所産

○ 生産關係→人間活動의 한 모습

⑱ 問 題 點

問題는 共產主義者들이 唯物史觀을 通하여 生産手段이 人間의 精神的 活動의 所産이라는 點을 否認하고 또한 生産關係의 變化가 複雜한 人間 活動中の 하나의 모습에 불과함에도 不拘하고 人間의 「이데올로기」가 生産關係에 依하여 決定된다고 단정한 점이 있습니다.

批判Ⅳ 社会發展의 5段階說

共産主義者 主張

社會發展의 公式化→必然的, 段階的
發展

社會發展의 類型

○革命方法 ○점진적進化

①9 批判Ⅳ 社会發展의 五段階說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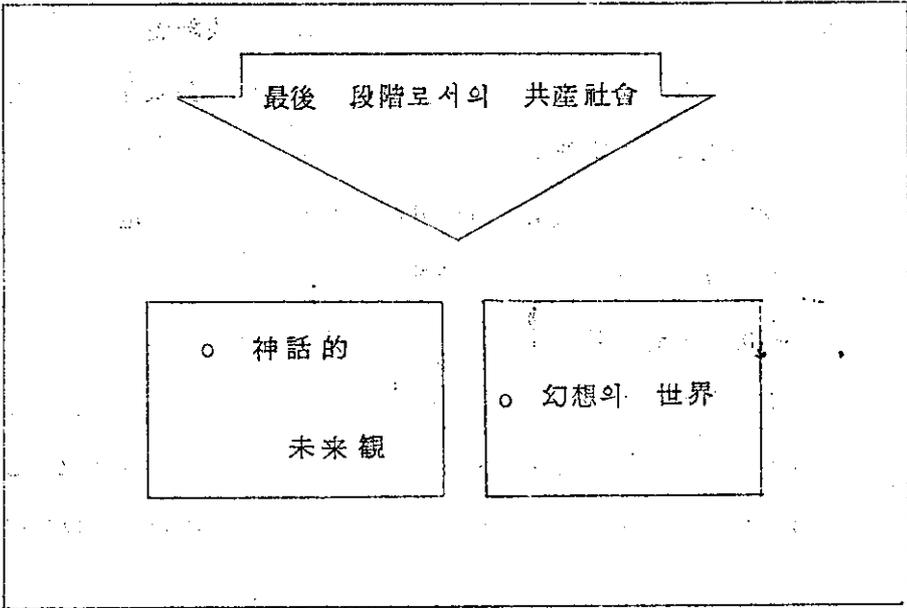
첫째로 共產主義者들은 앞서 說明드린 바와 같이 人類歷史를 物質生産力의 段階的 發展過程이라 보고 5段階說을 맹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社會發展을 하나의 틀에 맞추어 公式化하여 必然的 段階的 發展으로 断定하고 있으나 그들의 主張에 따르면 先進資本主義 國家는 이미 共產化되었어야 할 것이고 後進地域에서는 共產主義 運動은 있을수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實情을 보면 여러 資本主義 國家들이 社會主義 國家로 必然的으로 變하고 있지도 않으며 더욱이 資本主義 段階를 거치지 않은 後進地域에서도 共產主義運動이 일어나고 있으니 共產主義 社會의 發生에 관한 그들의 主張은 歷史的 現實에 부합하지 않은 것임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일찍이 「오스트리아」의 經濟學者인 「슈페타」가 그의 「資本主義 社會主義 그리고 民主主義」란 著書에서 “社會科學의 領域 안에서 「불가피하다」 또는 「必然的이라」함은 自然法則的인 것이 아니라 다만 어떤 傾向만을 意味한다”고 지적한 것처럼 分明히 社會發展에 관한 必然性에는 限界가 있는 것입니다.

即 社會發展의 類型을 보면 革命에 依해서도 이룩할 수 있고 때로는 점진적 進化에 依해서도 이룩될 수 있다는 것을 分明히 分辨해야 할 것입니다.



② 批判Ⅳ 社会發展의 五段階說 (2)

그리고 社會의 最後段階로서 共產社會를 내세우고 있으나 여기에는 分明히 神話的인 未來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人類社會의 모든 악폐가 사라지고 物質의 궁핍도 없어진 「유토피아」의 千年王國說이 깃들고 있다 하겠읍니다.

그렇게 볼진대 「마르크스」가 約束한 最後段階로서의 共產主義社會는 勞動者 農民을 현혹하는 한갓 幻想의 世界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小 結 論

共産主義者들은 矛盾의 弁證法

①

을 共産政權 爭取 段階에만

適用하였다.

② 小 結 論 (1),

以上으로 共產主義 基本哲學의 概要와 그에 對한 論理的 矛盾性
과 虛構性을 大體 살펴 보았습니다.

여기서 이를 綜合整理해 보면 다음과 같은 結論을 導出할 수
있습니다.

첫째, 共產主義者들은 모순이 發展의 原動力이라고 본 弁證法을
共產主義政權 奪取 段階에만 적용 하였습니다.

共産主義者들은 「革命意識」, 「革命

②

精神」을 強調하므로써, 「物質의 必然

的 決定論」인 唯物論을 스스로 否定

했다. 또한 그것이 人間社會에 미친

害毒性은 너무나 크다.

② 小 結 論 (2)

둘째, 共產主義者들은 「革命意識」 「革命精神」 等 「이데올로기」 的 側面을 強調함으로써 人間生活의 決定要素로서 物質을 내세운 소위 「唯物論」을 스스로 否定하고 있습니다.

또한 「唯物論」은 共產黨支配의 合理性을 正當化 시키려는 手段으로 使用되어 왔을뿐 人間社會에 끼친 害毒성은 너무도 컸습니다.

共産主義者들의 唯物史觀은

③

人類發展에 있어서 人間의 精神的

活動을 전혀 度外視 하였다.

②③ 小 結 論 (3)

셋째 共產主義者들은 人間社會의 形而上學的이고 觀念的인 上部構造가 形而下學的이며 物質的인 下部構造에 依하여 變化되고 決定된다는 唯物史觀을 믿음으로써 人類發展에 있어서 人間의 精神的 活動과 그 功績을 전혀 度外視 하였습니다.

共産主義者들이 共産社会의

必然的 到来論을 主張하고 있

지만, 그것은 幻想的인 꿈에 不過하다.

② 小 結 論 (4)

넷째로, 共產主義者들이 共產社会의 必然的 到来論을 主張한 것은 새로운 社会에 对한 幻想的인 夢이었다 하겠습니다.

共産主義者들이 自讚하는 「마르크스」

⑤

主義의 「科学性」 운운은 社会現實을

無視한 非科學的 獨斷論이다.

②5 小 結 論 (5)

다섯째 共產主義者들이 곧잘 自贊自讚하는 「마르크스」의 科學性 云云은 社會現實을 無視한 非科學的 獨斷論이라 보겠습니다.

우리는 科學性的 要素를 「經驗」과 「理論性」과 「一貫性」 그리고 「批判을 통한 修正補完 可能性」을 一般적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共產主義者들은 이를 無視하고 共產主義를 時空을 超越한 絶對的 眞理라고 主張할 뿐만 아니라 이를 主張하는 國家마다 이의 批判을 一체 許容하지 않고 있는 實情입니다.

共産主義는 새로운 神들을

⑥

탄생 시켰다.

2

共產主義 政治理論과 實際

②7 共產主義 政治理論과 實際

다음은 두번째 講座로서 「共產主義의 政治理論과 그 實際」에
對하여 說明 드리겠습니다.

共産主義 政治理論

1. 階級 闘争論

2. 暴力 革命論

3. 「프롤레타리아」 独裁論

4. 前衛党論

5. 国家 死滅論

② 目 次

共産主義 政治理論은 「階級鬭爭論」 「暴力革命論」 「프롤레타리아 獨裁論」等 「마르크스」의 中心思想과 더불어 「前衛黨論」 그리고 「國家死滅論」等의 順序로 說明 드리겠습니다.

1. 階級 鬭爭論

生産手段의 所有關係

人類社会

階級社会 形成

社会歴史

階級鬭爭의 歴史

社会分裂

2代^대 對抗 階級
「부르조아」와 「프롤레타리아」

- 「부르조아」에 對한 「프롤레타리아」 階級鬭爭
- 政權 奪取를 위한 政治鬭爭 ○ 革命과 獨裁

② 階級 鬭 争 論

먼저 共產主義者들이 主張하는 階級鬭争論의 概要에 對하여 살펴 보기로 하겠습니다. 「마르크스」는 唯物史觀에 立脚하여 生産手段의 私的所有關係가 人間에 依한 人間の 착취를 만들어내서 結局 人類社會에 階級社會를 形成한다고 하였습니다.

때문에 모든 社會의 歷史는 階級鬭争의 歷史로 보고 自由人과 奴隸 貴族과 平民, 領主와 農奴等 抑壓者와 被抑壓者는 언제나 對立하여 어떤때는 暗暗裡에 어떤때는 公公然히 不斷한 싸움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全社會는 生産手段의 所有關係에 따라 二大對抗階級 即 「부르조아」와 「프롤레타리아」로 分裂되고, 「부르조아」에 對한 「프롤레타리아」의 階級鬭争은 차츰 勞動階級에 依한 政權奪取라는 政治的 鬭争으로 發展하고 나아가서는 國家的 鬭争 또는 國際的 鬭争으로 擴大 發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프롤레타리아」階級鬭争은 社會全體의 利益을 代表하기 때문에 必然的으로 革命과 獨裁의 길을 扞한다고 主張하고 있으며 끝내는 「부르조아」는 沒落하고 「프롤레타리아」의 勝利는 必然的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階級 鬭爭論 批判

批判 I

社会歴史를 階級鬭爭史로

階級 關係

對 立

協 調

聯 合

社会에는 階級鬭爭보다 階級과 階級과의 協調가
순화

(카알 . 카우츠키)

③⑩ 階級 鬭爭論 批判

批判 I. 社会歴史를 階級鬭爭史로

그러면 이 階級鬭爭論이 지니고 있는 矛盾點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共產主義者들은 「모든 社会의 歴史를 對立關係로 理解하며 階級鬭爭의 歴史」라고 断定하고 있다는 點입니다.

그러나 現實의 階級關係는 「마르크스」가 主張한 것처럼 착취자와 피착취자 라는 두개의 階級間의 鬭爭으로만 볼수 없으며, 오히려 다양하고 복잡한 關係인 것입니다.

어떤 問題를 두고 對立하는 두가지 集團이 다른 問題에 있어서는 서로 聯合하여 다른 集團과 對立할수도 있는 것이며, 또한 階級間에는 相互協調의 側面도 있다는 點을 指摘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마르크스」主義者이며 獨逸의 社会民主党 指導者 「카알·카우즈키」가 그의 「階級協調論」에서 “오늘날 社会에는 階級鬭爭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實質적으로 階級과 階級과의 協調가 순화되어 가는 경향이 크게 나타난다”고 지적한 바와 같이 政府에 依한 社会施策等으로 勞動組合의 組織이 發達되고 勞動者들의 生活水準이 크게 向上되어 結局 階級の 對立 보다 勞使間의 協調가 이루어지는 實情임으로 社会歴史를 階級鬭爭史로만 断定한 「마르크스」主義는 人間社会의 肯定的 側面을 意識적으로 度外視하고 否定的 側面만을 強調하였다는데 그 矛盾이 있는 것입니다.

批判Ⅱ

「프롤레타리아」階級の 利益은 全體의 利益

「프롤레타리아」 階級

- 歴史上 選定된 階級
- 社会 全體의 利益을 代表

暴力 煽動論

③ 批判Ⅱ 「프롤」階級の 利益은 全體의 利益

둘째로, 共產主義者들은 「프롤레타리아」階級을 歷史上 選定된 革命的 階級으로 보고 그의 利益이 바로 社会全體의 利益을 代表한다고 主張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들의 主張은 양보나 妥協이 있을수 없으며 오직 무자비한 鬪爭만을 앞세우는 一種의 暴力煽動論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特定階級の 利益만을 내세우는것은 自体가 너무나 偏협하고 感情的인 主唱임은 말할것도 없거니와 現代國家에서는 民族的利益, 國家的利益, 國民連帶意識 等으로 表現되는 보다 높은 次元의 人類全體의 利益도 엄연히 있는데도 不拘하고 유독 「프롤레타리아」 階級の 利益만을 내세우는 이면에는 現代社會의 秩序를 전복하여 그들의 政治的 目的을 達成하려는 意圖가 있기 때문입니다.

批判Ⅲ

現代中間階級の 存在無視

先進工業國家の 社会構造

少数の 富裕階級

多数の 中間階級 形成

- 企業 經營 参与
- 資本家階級と 結付

少数の 貧困階層

③ 批判Ⅲ 現代中間階層의 存在無視

셋째로, 「階級鬪爭論」이 저지른 오류는 現代의 中間階層의 存在를 전혀 無視하고 있다는 點입니다.

「마르크스」와 「엔겔스」는, 現代의 中間階層이 沒落되어 下部階層으로 전락한다고 主張하였으나 오히려 現實은 그 反對의 現象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先進工業國家의 社會構造는 「피라미트」型이 아니라 「다이아몬드」型으로 變化되어 가고 있으며 少數의 富裕階級과 少數의 貧困階級間에는 大量의 中間階層이 形成되어가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더우기 中間階層中에서 企業의 經營에 參與하는 경우는 勿論 여러가지 利害關係에서 보면 오히려 資本家階級과 결부되는 수가 많은것이 오늘날의 現實이며 또한 先進資本主義諸國은 政策的으로 中間階層을 育成하고 있는 實情입니다.

批判Ⅳ

「프롤레타리아」의 勝利는 必然的이다.

「 부르조아 」는 沒落 「 프롤레타리아 」

의 勝利는 必然的이다.

現實은..... ?

資本主義 國家	沒落도 勝利도 없다.
社會主義 國家	새로운 階級 形成 새로운 착취關係 成立

③③ 批判Ⅳ 「프롤」의 勝利는 必然的이다.

共產主義者들은 「부르조아」는 沒落되고 「프롤레타리아」의 勝利는 必然的인 것이라고 主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資本主義社會의 現實을 볼때, 거기에는 「부르조아」의 沒落은 물론 勞働者階級의 勝利도 찾아 볼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暴力과 革命으로 政權을 잡은 社會主義國家에서 前「유고」의 副統領이었던 「밀로반·질라스」의 말대로 새로운 特權階級이 形成되고 그들에 依한 새로운 착취관계가 일어나고 있는 實情입니다.

2. 暴力革命論

共產主義者の革命觀

原因	○生産力과 生産關係의 矛盾과 충돌
概念	○階級の 權力 移動 ○經濟關係 變革
結論	○社会構造 全般의 變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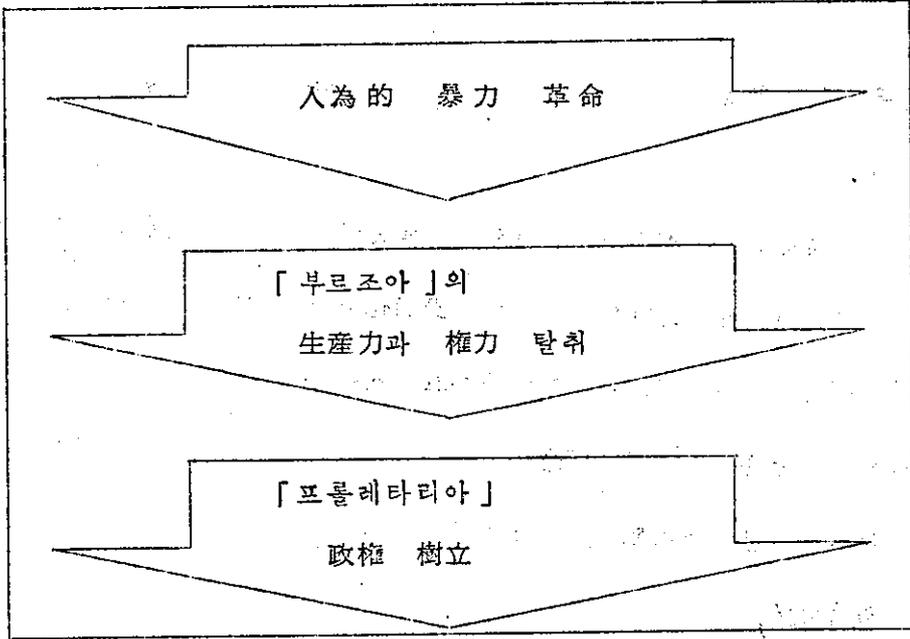
③4 暴力革命論 (1)

다음은 共產主義者들이 主張하는 暴力革命論에 對하여 說明을 드리겠습니다.

共產主義者들은 資本主義國家에서 生産力이 一定한 發展段階에 이르르면 生産關係에 있어서 矛盾이 表面化되고 勞動者와 資本家와의 衝突이 不可避하여 革命이 일어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革命의 概念을 「부르조아」階級에서 「프롤레타리아」階級으로의 政治權力의 移動과 經濟關係의 全面的인 變革에서 찾고 있습니다.

結論的으로 말해서 革命은 單純한 政治革命으로서가 아니라 社會의 上部構造와 下部構造를 망라한 構造 全般에 걸친 社會革命으로 生覺하고 있습니다.



㉓ 暴力革命論 (2)

그러나 이러한 社會制度의 變化가 스스로 이루어 지지 않는다는
결 안 그들은 人爲的인 暴力革命을 通하여 「프롤레타리아」가
「부르조아」의 手中에서 生産力과 政治權力을 탈취하고 끝내는
「프롤레타리아」政權을 樹立하여 社會構造의 轉換을 이룩하여야 한
다고 主唱하였읍니다.

「레닌」은 이러한 暴力革命의 戰略的 展開를 爲해서 勤勞者의
大多數가 革命의 必要性을 充分히 理解하고 그를 爲하여 스스로의
生命을 犧牲시킬 覺悟가 先行되어야 한다고 強調하였읍니다.

暴力革命論 批判

批判 I

暴力의 必須化

暴力의 適用

「프롤레타리아」革命 過程	必須的 手段
「프롤레타리아」政權 掌握 후	戰術的 手段

③⑥ 暴力革命論 批判

批判 I 暴力의 必須性

그러면 暴力革命論이 지니고 있는 虛構性과 矛盾性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첫째 共產主義者들은 「프롤레타리아」革命에 있어서 暴力을 「必要惡」으로 보지않고 없어서는 안될 必須的인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지난날의 모든 革命이 낡은 政治制度가 經濟的 社會的 發展을 制約하게 되면서 부터 發端하였던 事實을 잘 알고 있습니다.

歷史上 革命의 主体로써 새로이 登場한 勢力은 暴力을 革命의 道具로써 活用하였으나 그것은 一時的인 現象이고 暴力을 使用하는 경우에는 現實肯定的인 考慮가 없지 않았읍니다.

그러나 共產主義者들은 暴力을 崇拜하여 「프롤레타리아」革命過程에서 必須的인 手段으로 適用함은 勿論 政權을 掌握한 후에도 이를 戰術的인 手段으로 繼續活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스탈린」의 恐怖的인 괴의 숙청, 毛澤東의 文化革命에 依한 暴力行爲 그리고 金日成의 唯一思想体制 確立을 爲한 무자비한 숙청等이 바로 이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批判Ⅱ 特定国家의 暴力革命의 合理化

「마르크스」 理論

革命의 前提条件 → 資本主義의 經濟的 成熟

「레닌」의 修正論

革命의 客觀的 條件 → 政治的 階級關係
(革命遂行의 主体的 力量의 成熟)

- 「러시아」 革命 合理化
- 後進國 革命 선동

③7 批判Ⅱ 特定國家의 暴力革命의 合理化

둘째 暴力革命論은 特定 國家의 暴力革命을 合理化한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르크스」의 理論에 依하면 社會主義革命의 前提條件으로 資本主義의 經濟的 成熟을 내세우고 있었으나 「레닌」은 이를 修正하여, 「오늘의 帝國主義時代에 있어서는 革命의 客觀的 條件은 한 나라의 經濟的 成熟에 있는 것이 아니라 政治的인 階級關係 如何에 달렸으며 따라서 革命을 遂行할 主体的 力量의 成熟 即 共產黨의 組織이 무엇보다도 時急하다고 主張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레닌」의 修正論은 「러시아」 革命을 合理化하고 나아가서는 後進國에서 革命을 선동하는 暴力的 戰術로 밖에 볼 수 없으며 窮極的으로 世界를 無秩序한 革命의 도가니 속에 몰아 넣어 世界의 赤化를 企圖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批判Ⅲ

共産党의 使命을 過大評価

共 産 党

主 張

実 際

- 民主勢力 代表
- 民主化의 歴史的 使命 高취

- 기존 民主秩序 파괴
- 타협, 調整의 폐쇄
- 自己주장의 狂信

③ 批判Ⅲ 共産黨의 使命을 過大評價

셋째로, 共産主義者들은 「프롤레타리아」 階級政黨인 共産黨의 歷史的 使命을 過大評價하였습니다.

걸으로는 共産黨이 그 나라의 民主勢力을 代辦하고 民主化의 歷史的 使命을 지니고 있는듯이 主張하고 있으나 實際에 있어서는 自由롭고도 合法的인 選舉節次를 通하여 樹立된 既存民主秩序를 파괴하고 「이베올로지」만을 고집한 나머지 妥協과 調整의 길을 스스로 폐쇄하고 있으며 또한 自己의 主張을 狂信하고 相對方을 全적으로 無視하는 편협한 思考方式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그들의 主張을 絶對眞理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마르크스」나 「레닌」 그리고 「毛澤東」이나 「金日成」 등에서 한 없는 眞理를 캐내는 것입니다.

批判Ⅳ

暴力革命論은 時代의 遺物

「마르크스」主義 自体의
變質

「엥겔스」
暴力革命 → 時代의 遺物
로 自認

③ 批判Ⅳ 暴力革命論은 時代의 遺物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共産黨 宣言」에서 現存하는 모든 制度를 오직 暴力으로 전복하여 共産主義의 所期의 目的을 達成해야 한다고 외쳤읍니다.

그후 共産主義 追從者들은 이 暴力萬能의 極限的 革命論을 政治理論의 龜鑑으로 主唱하여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르크스」의 忠實한 弟子인 「카알·카우즈키」는 그의 力作 「프롤레타리아 革命과 그 강령」에서 暴力革命을 社會主義革命의 不可缺의 條件이라고 主張한 「레닌」을 「마르크스」主義의 自体變質이라고 크게 痛박하였으며 한편 「마르크스」가 죽은지 7年後인 1890年 獨逸에서 社會政策立法에 依한 社會保障制가 널리 施行되고 있는 것을 目撃한 「엥겔스」는 1848年의 「프랑스」가 失敗한 2月革命 當時의 革命戰術을 回想하는 다음과 같은 有名한 말을 남겨 놓았읍니다.

即 「1848年의 鬭爭方法은 오늘날에 와서는 모든 關係에서 뒤떨어진것이 되었다. 意識 없는 大衆의 先頭에 서서 意識있는 少數者가 遂行하던 革命의 時代는 지나 갔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필경 暴力革命理論이 時代의 遺物임을 그들 스스로가 自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3. 「프롤레타리아」 独裁論

마르크스

- 暴力革命 → 「부르조아」階級支配 打到
- 生産手段 奪取 → 「프롤레타리아」手中에
集中

- 「프롤레타리아」階級支配 實施
(「프롤레타리아」독재)

- 独裁 遂行을 위한 政治機構 必要
(파리·공문)

④ 3. 「프롤레타리아」 独裁論

다음은 「마르크스」가 主張하는 「프롤레타리아」独裁論에 對하여 說明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暴力革命」으로서 「부르조아지」의 階級支配를 打倒한 다음에 「프롤레타리아」에 依한 階級支配를 이룩하고 同時に 「부르조아」階級の 手中에서 모든 生産手段을 빼앗아 組織화된 「프롤레타리아」의 手中에 集中시킴으로써 「프롤레타리아」階級の 独裁를 實現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롤레타리아」独裁가 어떤 形態의 政治機構를 通하여 이루어 져야 하느냐가 重要な 問題였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1871年の 「파리·공문」이야말로 「프롤레타리아」独裁에 適合한 政治機構라고 生覺했던 것입니다.

「레닌」·「스탈린」

- 「프롤레타리아」 權力掌握은 革命의 出發에 不過
- 打倒階級の 根本的 根絶 主張

「프롤레타리아」 独裁의 任務

- 資本家の 復活기도 粉粹
- 모든 勤勞者の 集結 組織化
- 革命의 武装, 革命 軍隊의 組織

④ 「레닌」, 「스탈린」

그러나 이와같은 「프롤레타리아」 独裁에 関한 「마르크스」의 主張은 그 以上으로 發展하지 못했으며 「레닌」과 「스탈린」에 依하여 크게 進展되었습니다.

그들에 依하면 “「프롤레타리아」 革命에 있어서 「프롤레타리아트」

에 依한 權力掌握은 革命의 出發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부르조아지」는 權力에서 追放되었다고해서 곧 經濟적으로 無力해 지는것이 아니라 相當한 期間에 걸쳐서 強力한 經濟力을 持續하면서 舊制度의 復活을 企圖하여 「프롤레타리아트」에 對한 反抗을 激化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프롤레타리아트」는 權力을 強化하여 打倒된 착취계급의 反抗要素를 根本적으로 根絶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프롤레타리아」獨裁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스탈린」은 「프롤레타리아」獨裁에 부과된 任務는 다음의 세 가지라고 指摘하였습니다.

첫째로 地主와 資本家들의 낡은 權力을 復活시키려는 온갖 企圖를 분쇄하고

둘째로, 모든 勤勞者들을 「프롤레타리아」의 주위에 集結시키도록 組織化 하며

셋째로, 帝國主義와 싸우기 爲하여 革命을 武装化하고 革命軍隊를 組織하는것, 等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롤레타리아」獨裁는 資本主義에서 共產主義에의 過渡期에 있어서의 唯一한 支配形態라고 하며 共產主義者들은 既存의 國家機關대신 大衆을 널리 포섭하기 爲하여 「쏘비에트」制度를 採擇해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습니다.

「프롤레타리아」独裁論 批判

批判 I \ 競争的 政党的 存在를 不許

「프롤레타리아」 独裁는 唯一政党, 即
共産党에 依한 独裁政治이다.

- 国民에 对한 政策強要 機關
- 政權의 核心 機關
- 国家 機關의 指導勢力

共産主義政府 = 党的 政府

(질라스)

④ 「프롤레타리아」獨裁論 批判

批判 I 競争的 政党的 存在를 不許

그러면 「프롤레타리아」獨裁論의 矛盾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첫째, 共產主義者들은 資本主義에서 共產主義에의 過渡期에 있어서의 唯一한 支配形態로서 「프롤레타리아」階級政党的 以外的 어떠한 競争的인 政党的도 그 存在를 단호히 배제하고 있습니다. 소련 共産黨 規約에 依하면 “黨은 社會組織과 政治組織의 最高形態이며 「소비에트」 社會의 指導的 核心”이라고 規定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프롤레타리아」獨裁는 唯一黨에 依한 獨裁政治라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立法機關이 民意를 代表할 必要가 없으며 重要한 政策이나 法律案은 直接 立案할 必要가 없으므로 複數政党的 存在가 不必要한 것입니다.

唯一黨인 共産黨은 國民에게 政策을 強要하는 機關이며 政權의 가장 重要한 核心이며 모든 國家機關의 指導勢力인 것입니다.

이에 對하여 「밀로반·질라스」는 “共産主義政府는 黨의 政府이다”라고 개탄한 바 있습니다.

批判Ⅱ

国民大多数의 意思와 無関

名 分

「人民의 意思

代 辦

实 際

少数 또는 1人

独 裁

本質的으로 反民主政治

④ 批判Ⅱ 国民大多数의 意思와 無関

둘째, 「프롤레타리아」独裁政權은 国民大多数의 自由意思와는 無関하게 「人民의 意思」를 代弁하고 있다고 宣傳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實際에 있어서는 独逸의 純粹法學者인 「한스·켈젠」이 갈파한 것처럼 ① 階級独裁는 모든 근로자를 代表하는 独裁가 아니라 ② 少数의 共産黨의 独裁에 不遇하며 그것도 ③ 實質적으로 個人独裁로 歸着되고 말았읍니다.

우리는 이러한 事例를 오늘의 共産國家의 現實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프롤레타리아」独裁論은 全國民의 政治參與를 基本理念으로 하는 民主政治와는 本質적으로 다른 反民主政治인 것입니다.

批判Ⅲ

새로운 主從關係의 出現

階級消滅의 目的으로

國有化 및 集團化

政敵, 反革命分子 속청

黨과 個人的 權力獨占化

새로운 階級 出現

④ 批判Ⅲ 새로운 主從關係의 出現

셋째, 「프롤레타리아」獨裁는 새로운 主從關係를 탄생 시켰읍니다. 共産黨은 「프롤레타리아」獨裁로서 착취와 피착취의 階級消滅을 目的으로 私有財産을 沒收하여 國有化 또는 集團化를 試圖하였읍니다. 한편, 政敵의 숙청, 反革命分子의 소탕, 舊指導者의 除去등, 너무나 많은 人命을 희생시켜, 黨과 個人의 權力을 獨點化 함으로써 새로운 形態의 착취계급을 造作해 냈읍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政治權力이 도시와 農村의 근로인민에게 있다고 宣傳하며 滿場一致制로 끝나버리는 「소비에트」選舉를 世界에서 가장 훌륭한 것이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프롤레타리아」獨裁論의 虛構性이 있는 것입니다.

4. 前衛黨論

勞動階級の区分

労働組合等 大衆組織

階級意識 缺如

少数精鋭，革命家

階級意識 透徹

前衛黨 (共産黨)

④5 4. 前 衛 党 論

다음은 「레닌」에 의하여 發展된 階級 鬪爭의 前衛組織으로서의 共産党 理論에 對하여 說明드리 겠습니다.

「레닌」은 모든 勞動階級이 한결같이 「마르크스」主義的 階級意識으로 武裝되어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勞動者 階級을 階級意識이 미약한 勞動組合主義的 大衆組織과 「마르크스」主義的 階級意識이 透徹한 少數의 精銳와 職業的 革命家로 区分하여 後者에 依해서 構成된 前衛党이야 말로 革命을 主導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레닌」은 前衛党에는 組織의 硬固성과 行動的 性格 크 리고 指導性이 뒤따라야 한다고 強調했습니다.

共 産 党

1. 労働者 階級の 前衛隊
2. 労働者 階級の 組織된 指導部隊
3. 「프롤레타리아」 独裁의 道具
4. 階級 組織의 最高形態
5. 单一意志의 統一體

④ 共 産 党

그러면 「레닌」과 「스탈린」이 보고 있는 共産党的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로, 勞働者 階級의 核心的 前衛隊라는것.

둘째로, 勞働者階級の 組織된 指導部隊로써 中央党部가 党活動을 指導하는 原則, 일단, 決定된 事項을 鐵의 規律로써 遵守시킨다는 原則等 「中央集權制」를 組織原則으로 삼는다는 것이며.

셋째로, 「프롤레타리아」獨裁를 斷行하기 爲한 政治 道具라는 것이며.

넷째로, 「프롤레타리아」階級組織의 最高 形態라는 것이며.

다섯째로, 일체의 分과를 許諾하지 않는 單一意思의 統一体라는 것이고.

그밖에 党의 發展原理로서 「批判」과 「自我批判」을 活用한다는 것等 입니다.

前衛党論 批判

批判 I 国民的、民族的 利益의 無視

国民의 分裂 助長

国民的、民族的 利益 無視

少数의 階級利益 追求

④7 前衛党論 批判

批判 I 國民的 民族的 利益의 無視

그러면 階級鬭爭의 前衛組織으로서의 共産党理論의 虛構性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첫째 아무리 階級을 主導하는 階級政黨 일지라도 國民的, 民族的, 利益을 無視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의 國際關係에 있어서 모든 國家가 超黨的이고 超階級的인 立場에서 國家의 總力을 集結하고 있는 現實을 볼때 共産主義者들이 主張하는 前衛黨論은 한마디로 말해서 國民의 分裂을 助長하고 階級的 利益이 國民的, 民族的, 利益에 優先하는 少數의 階級 利益의 追求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批判Ⅱ

黨獨裁 및 個人獨裁의 強化策

「레닌」主義의 黨理論

共産黨 最高 指導者의 獨裁로 귀결

個人 偶像化

○ 「레닌」

○ 「스탈린」

○ 모택동

○ 김일성

④ 批判Ⅱ 党独裁 및 個人独裁 強化策

둘째로 共產主義者들이 主張하는 前衛党理論은 結局 党과 個人独裁를 強化하기 爲한 方法論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레닌」이 말한대로 共產党이 勞働者階級에게 革命的 階級意識을 注入한다면 「프롤레타리아」独裁란 바로 「프롤레타리아트」에 依한 「党的 独裁」를 意味하게 되는 것이며 党的 独裁도 少數의 党政治委員이나 党最高指導者에 依하여 움직여 진다면 結局 前衛党理論은 個人独裁를 合理化하는 手段에 不適當한 것입니다.

여기에 党的 最高指導者에 對한 偶像化가 必然的으로 나타나게 되며 그 例로 소련의 「레닌」과 「스탈린」의 個人崇拜는 말할 것도 없고 中共의 文化 大革命 以後 毛澤東 思想의 神聖不可侵性이나 金日成 唯一思想의 絶對性等 個人에 對한 神格化를 들 수 있습니다.

批判II

中央集權的組織原理

自由討論，少數意見 不在

少數派，分派的存在 不許

黨的絕對性，無誤謬性
主張

獨裁偽裝 → 「民主的中央集權制」宣傳

④ 批判Ⅲ 中央集權的 組織原理

셋째로 共產主義者들은 所謂 民主主義的 中央集權制 組織原理를 가장 民主主義的이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만 「中央集權의 原則」이 「民主的 原則」을 壓倒하고 있는것은 周知의 事實입니다.

共產黨이 真正한 民主主義的 機構라고 한다면 自由討論이나 少數意見이 尊重되어야 함은 勿論 少數派나 分派의 存在도 許容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共產主義 國家에서는 이러한 事例는 볼 수 없을 뿐더러 共產黨 指導部에는 「오류란 있을수 없다」는 所謂 「無오류성」과 「絕對性」을 내세우고 있는 現實인 것입니다. 때문에 共產黨의 所謂「民主主義的 中央集權制」는 獨裁를 위장하기 爲한 「民主主義」라는 用語의 남용에 不過하다고 하겠습니다.

批判Ⅳ

自我批判

自我批判 → 前進을 위한 열쇠

- 上部黨의 政策決定에 대한 關心의 集中 方法
- 간부의 재훈련 手段
- 要注視 간부의 규탄 手段
- 黨의 無限性의 과시 方法

北韓 → 相互批判, 「読報會」

⑤ 批判Ⅳ 自我批判

셋째로 共産黨이 곧잘 使用하는 「自我批判」에 對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련의 政治理論家 「살리코프」는 “批判과 自我批判 없이는 自身の 隊列속에 숨어있는 敵을 적발할수 없는 것이며, 또 「프롤레타리아」革命을 準備하고 遂行할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여 自我批判을 前進을 爲한 열쇠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共産黨이 그렇게 所重하게 생각하는 自我批判도 民主政黨에서 말하는 發展을 爲한 自己反省과는 本質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들은 自我批判을 다음과 같은 目的에서 使用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上級黨部에서 이미 決定한 政策을 完遂하기 爲하여 모든 關心을 이에 集中시키는 方法 일입니다.

둘째는 共産主義에 회의를 느끼는 幹部를 組織적으로 세뇌하여 自己들의 目的에 맞도록 再訓練 시키는 重要한 手段입니다.

셋째는 指目된 黨幹部를 무자비하게 규탄하는 手段 일입니다.

넷째는 黨의 無限한 權力과 能力을 黨員에게 誇示하는 方法 일입니다.

이것은 黨員個人은 오류를 犯하지만 全體的인 黨은 결코 오류를 犯하지 않는다는데에 根柢를 두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共産黨은 黨의 發展을 爲해서 보다도 黨의 統制를 強化하고 黨員을 괴롭히는 重要武器로서 自我批判을 使用하고 있으며, 北韓의 경우의 「相互批判」이나 「諛報會」도 이와 類似한 性質의 것입니다.

5. 国家 死滅論

「마르크스」, 「엔겔스」

国家 → 階級の 착취 및 支配組織

階級關係 消滅 → 国家 消滅

「프롤레타리아」独裁政權 樹立

→ 生産 手段의 公有化

抑压 階級の 不在

⑤ 5. 國家死滅論

共産主義 政治理論의 마지막 分野로서 國家死滅論을 說明하기로 하겠습니다. 「마르크스」와 「엔겔스」는 그들의 共著인 <神聖 國家>에서나 <도이취 이데올로기>에서 國家에 關한 學說과 「프롤레타리아」 革命에 關한 이론을 展開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들의 廣範한 國家論을 全部 다룰수 없기 때문에 「國家死滅論」을 中心으로 한 命題만을 紹介하기로 하겠습니다.

子先 「마르크스」와 「엔겔스」에 依하면 國家란 한 階級이 다른 階級을 착취하고 暴力으로 支配하기 爲한 組織에 不過하며, 그 以外の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착취와 피착취의 階級關係가 消滅되면 國家도 當然히 消滅되며 「프롤레타리아」獨裁 政權이 樹立되면 生産手段의 共有化가 이루어져서 「부르초아」와 「프롤레타리아」의 區別이 消滅됨과 同時에 抑壓階級도 存在하지 않게 되므로써 國家도 必然적으로 消滅된다는 것입니다.

一部 無政府主義者들도 國家를 모든 惡의 源泉이라고 断定하고 이것을 용서없이 永遠히 破壞해 버려야 한다고 主張한 바 있지만 이 点에서 共産主義者들의 國家論과 一脈 相通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레 닌

国家 死滅 過程

1 段階	○ 共產社会에 의 過渡期的 国家 (半国家)
2 段階	○ 共產社会의 第1段階 国家의 不完全한 사멸 (「부르조아」的 權利의 잔재 存在)
3 段階	○ 共產主義의 高段階로 突入 国 家의 完全한 死滅

⑤2 國家 死滅論 (2)

그러나 「레닌」은 「마르크스」와 「엔겔스」의 國家論을 一部 왜곡하여 國家의 철폐는 暴力革命에 의한 철폐를 意味할뿐 國家自體의 最終的인 철폐나 消滅을 意味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國家는 「프롤레타리아」 國家로서 再生되어 그것이 오랜 期間이 경과한 다음에 비로소 死滅된다고 하였습니다.

「레닌」은 國家死滅 過程을 다음 세 段階로 区分 하였습니다. “첫째로 資本主義 社會로 부터 共產主義 社會로의 移行期에 있어서는 多數者인 被 착취자가 少數者인 착취자를 抑壓하기 爲한 特殊機構로서 國家가 必要하며 그것은 國家가 存在하지 않는 共產主義 社會에의 過渡期的 國家 即 半 國家의 段階이다.

둘째로 共產主義社會의 第1段階 다시말해서 社會主義 社會에서는 벌써 資本家도 없고 階級도 없으므로 어느 階級을 抑壓할 必要가 없다는 意味에서 國家는 死滅한다.

그러나 그곳에는 아직도 「부르조아」적 權利의 잔재가 많이 있으므로 國家가 完全히 死滅 되는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不完全한 國家의 死滅 段階이다.

셋째로 生産力의 巨大한 발전으로 말미암아 分業이 없어지고 精神勞動과 肉體勞動과의 区分이 없어 짐에 따라 共產主義의 높은 段階로 進진하면서 國家는 完全히 死滅된다.”

이와같이 「레닌」은 「프롤레타리아」 革命이 「프롤레타리아」 國家를 實現하고 더 나아가서는 「프롤레타리아」 國家도 死滅過程을 밟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國家死滅論 批判

批判 I

階級の 支配 機構

國家의 存在 理由

- 國家의 公共的 性格
- 社會秩序 維持 } 機能的 組織의 實體
- 福祉 增進 }
- 國家의 機能 → 階級 착취 배제

⑤3. 國家 死滅論

批判 I 한階級이 다른階級の 支配機構

그러면 國家死滅論의 矛盾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첫째 國家를 단지 한階級이 다른階級을 支配, 착취하기 위한 機構라고 主張 하고 있다는 點에 있습니다.

우리들의 經驗的 事實에서 判斷한다면 國家의 存在 理由는 被 支配階級の 抑壓 機關으로써 存在했기 보다는 實로 人間 全體를 爲하여 그것이 普遍的 價値를 가진 機能을 수행해 왔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國家의 存在 理由는 그의 公共의 性格에 있는 것이므로 社會의 질서 유지와 國民福祉 增進을 目的으로 하는 機能的 任務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共產主義者들이 主張하는 것처럼 國家는 階級の 착취기관으로서 存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階級間的 착취를 배제하는 方向에서 그 기능을 다하고 있는것입니다.

批判Ⅱ 共産國家의 가혹한 權力行使

「스탈린」

「마르크스」主義의 國家 死滅觀 修正

○ 「소련」이란 強制檢束 強化 主張

○ 全世界 共産化 段階 → 中央統制 檢束의 殘存主張

共産圈의 現實

가혹한 暴力政治 斷行

⑤4 批判Ⅱ 共産國家의 가혹한 權力行使

둘째로, 오늘날의 共産主義 國家들은 歷史上 보기도 못한 가혹한 權力을 行使하고 있다는 事實입니다.

「스탈린」은 古典의 「마르크스」主義의 國家死論을 大幅 修正하여 資本主義 社會가 남아있는 限 소련이라는 強制機關을 없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強化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계속하여 “실사 全世界가 共産化 된다고 치더라도 經濟의 組織化와 思想的 教育을 爲하여 國家行政 機關과 같은 形式의 中央統制機關은 남아 있게 된다”고 主張하였습니다.

이것은 「마르크스」 主義의 「國家死論」은 實現될 수 없는 架空의 幻想을 스스로 自認한 結果일 뿐만 아니라, 오늘의 共産國家에서 政治를 斷行하기 爲하여 보다 가혹한 國家機能을 惡用하고 있다는 事實을 불패, 「國家死論」은 黨獨裁를 合理化하는 名分의 理由로 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 입니다.

批判

必然的 惡으로서의 國家

國家는 必要惡의 反對

○ 安保 槪構로서의 國家의 必要性 增大

對外的 → 國民과 國土 防衛

對內的 → 國民의 生命과 財産 보호

○ 公共福祉 槪構로서의 國家의 役割 至大

○ 國民 大衆의 利益 도모

⑤ 批判Ⅲ 必然的 惡으로서의 國家

셋째로 共產主義者들은 國家를 必然的이고 絶對的인 惡으로 보
고 있습니다. 그러나 國家는 人間이 만든 것이며 人間의 個性
과 尊嚴性을 保護하기 爲하여 그의 創造的 努力을 다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國家는 必要惡이 아니라 오히려
그 反對인 것입니다.

外部勢力으로 부터의 侵略에 對処하여 對外的으로는 國民과
國土를 防衛하며 對內的으로는 國民의 生命과 財産을 保護하는
安保機構로서의 國家의 必要性은 날이 갈수록 增大해 가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教育·保健·社會保障制度·交通·체신等 公共福祉機構
로서의 國家의 役割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國家는 支
配階級의 利益보다 오히려 國民大衆의 利益을 더 크게 配慮하고
있는 것입니다.

批判Ⅳ 共產國家는 폐쇄社會

↓ 共產國家의 現實 ↓

- 一黨獨裁 國家
- 一黨 兵營社會
- 軍事的 官僚國家
- 秘密경찰의 統制社會

↓ 人間의 基本權 박탈 ↓

⑤ 批判Ⅳ 共產國家는 폐쇄 사회

내제, 共產主義者들이 地上樂園이라고 하는 共產國家의 現狀은 과연 어떠합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폐쇄된 統制社會인 것입니다.

英國의 功利主義者 「존 스튜어트. 밀」은 「全體主義」라는 著書에서 “만족한 돼지가 되는것 보다 차라리 不滿足한 人間이 되는 것이 좋다.”

“滿足한 바보가 되는것 보다 不滿足한 「소크라테스」가 되는것이 좋다.” 고 말한 바 있거니와 뭐니뭐니해도 人生의 目的은 人格과 個性의 成長과 發展에 있다고 하겠읍니다.

우리는 오늘의 共產國家의 現狀에서 共產國家는 本質的으로 一黨獨裁國家이며 一大兵營的 社會이며 軍事的 官僚國家이며 秘密警察의 統制社會임을 알게 되었읍니다.

그곳에는 職業選擇이나 居住移轉 및 旅行의 自由조차 認定하지 않고 있으며 良心의 自由, 信仰의 自由는 말할것도 없고 파업이나 賃金利上의 要求權도 허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人間의 基本權은 完全히 박탈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基本的 人權에 屬하는 여러가지 自由를 희생시키고 겨우 食生活에 滿足하는 동물적 生活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小 結 論

- ① 共產主義자들이 모든 社会의
歷史를 階級鬭爭史로 본 것은 現代
社会에 있어서 階級과 階級間의 協
調가 醇化되어 감을 外面한 것이다.

⑤7 小 結 論 (1)

以上으로 共產主義 政治理論과 그의 實際에 對하여 살펴 보았읍니다. 이것을 여기서 다시 綜合整理해 보면 다음과 같은 結論으로 導出될 수 있습니다.

첫째 共產主義者들이 모든 社會의 歷史를 無慈悲한 階級鬭爭의 歷史로 본 것은 現代社會에 있어서 實質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階級과 階級間의 協調가 醇化되어 가고 있음은 外面하고 人間社會의 肯定的 側面보다 否定的 側面을 自己들의 鬭爭目的을 爲하여 擴大強調한 것에 不過합니다.

共産主義者들이 「프롤레타리아」階級の

②

利益만 社会全体 利益이라고 主張

하는 것은 階級 独裁 實現을 위한

政治的 煽動論이다.

⑤8 小 結 論

둘째 共産主義者들이 「프롤레타리아」 階級の 利益만이 社会全体의 利益이라고 主張하고 있는 것은 階級独裁 實現을 爲한 政治的 煽動論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③

共産主義者들이 暴力를 必要惡으로

보지 않고 階級獨裁의 必須的인 것

으로 主張하는 것은 妥協할 줄

모르는 그들의 思考行態를 代辦

해 주고있다.

⑤9 小 結 論 (3)

세째 共産主義者들이 暴力을 必要惡으로 보지 않고 「프롤레타리아」 階級獨裁의 必須的인 手段으로 主張하는 것은 妥協할 줄 모르는 그들의 狂的인 思考行態를 代辨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暴力을 獨裁政權 樹立後에도 繼續活用하므로써 共産社會에는 恐佈的인 속칭이 그칠 날이 없는 것입니다.

④

共産主義者들이 資本主義에서 共産

主義에의 過渡期의 唯一한 支配形

態로서 「프롤레타리아」에 依한 獨

裁를 主唱하고 있는 것은 唯一黨

에 依한 獨裁政治를 實現하기 위

해서이다.

⑥ 小 結 論 (4)

네째로, 共產主義者들이 資本主義에서 共產主義에의 過渡期의 唯一한 支配形態로서 「프롤레타리아」에 依한 獨裁를 主張하고 있는 것은 唯一黨에 依한 獨裁政治를 強力히 實現하기 爲해서 입니다.

共産主義者들이 主張하는 前衛党論

⑤

은 國民의 分裂을 助張, 共産党的

階級的 特權意識과 歴史的 使命感을

과장한 理論이다.

⑥ 小 結 論 (5)

다섯째, 共產主義者들이 主張하는 前衛黨論은 國民의 分裂을 助張시키고 共產黨의 階級的 特權意識과 歷史的 使命感을 誇張한 것이라 하겠읍니다.

「레닌」主義의 黨理論은 黨과 個

⑥

人 獨裁를 強化하기 爲한 方法論

에 不過하다.

② 小 結 論 (6)

여섯째, 「레닌」主義의 党理論은 党과 個人獨裁를 強化하기
爲한 方法論에 不過합니다.

⑦

共產主義者들의 所謂 「民主主義的

中央集權制」는 共產黨 獨裁를 위

장하기 위한 「民主主義」 用語의

濫用이다.

⑥3 小 結 論 (7)

일곱째, 共產主義者들의 所謂 「民主主義的 中央集權制」는 共產黨의 獨裁를 위장하기 爲한 「民主主義」의 用語의 濫用에 不過합니다. 共產黨에는 오직 全體와 하나 그리고 無限한 權力과 特權만이 있는 것입니다.

共産主義者들이 「國家를 階級支配
⑧ 의 道具」로 보는 것은 國家의
存在 理由를 忘却한 時代錯誤的인
思考方式이다.

⑥4 小 結 論 (8)

여덟째 共產主義者들이 國家를 「階級支配의 道具」로 보고
있는 것은 國家의 存在 理由를 忘却한 時代錯誤的인 思考方式이
라 하겠습니다.

⑨

共產國家는 本質的으로 一黨獨裁

國家이며, 封鎖社會이며, 軍事的

好戰的 官僚國家이며, 同時에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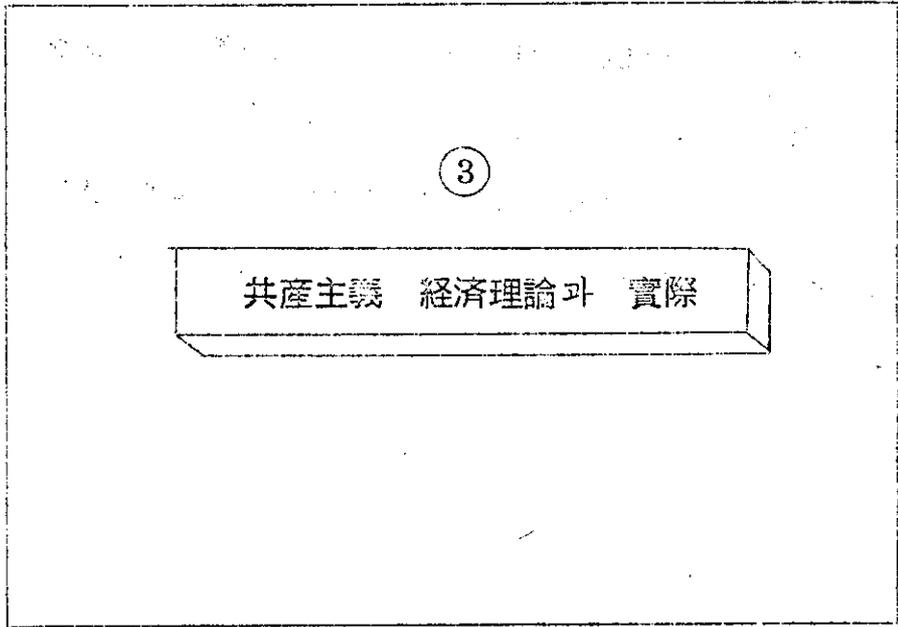
밀경찰의 統制社會이다.

⑥ 小 結 論 (9)

아홉째, 共産國家는 本質的으로는 一黨 獨裁國家이며 封鎖社會이며 軍事的 好戰的 官僚國家이며 나아가서는 秘密警察에 依한 統制社會인 것입니다.

結論的으로 말하면, 共産社會는 人間의 基本權의 保障과 人間의 尊嚴性을 추호도 期待할 수 없는 非情의 社會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1) 總序



⑥ 共産主義 經濟理論과 그 實際

다음은 세 번째 講座로서 共産主義 經濟理論과 그 實際에 對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共產主義 經濟理論

1. 勞動 價值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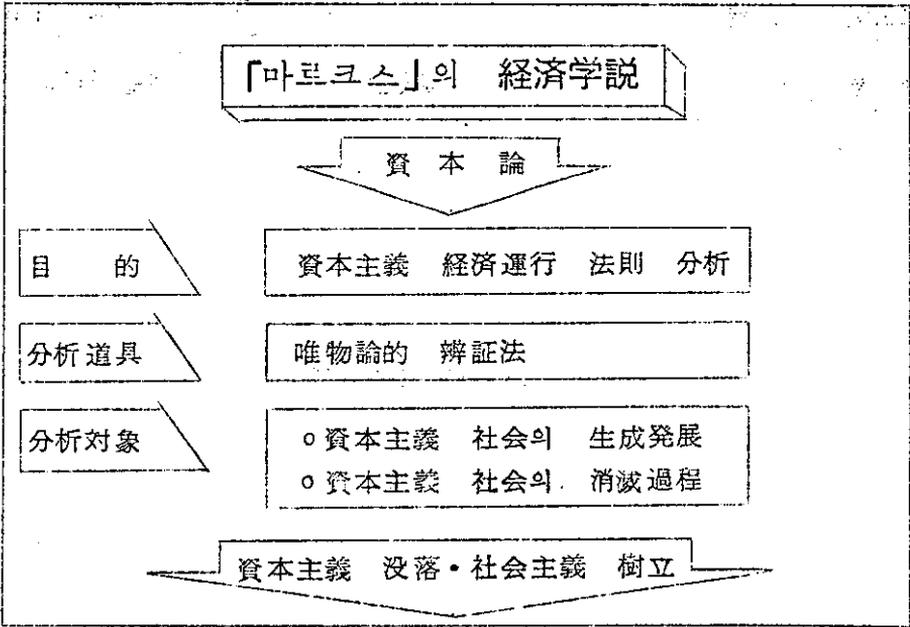
2. 剩餘 價值說

3. 資本主義 崩壞論

4. 帝國主義論

⑥7 目 次

共產主義 經濟論은 「勞動價值說」과 「剩餘價值說」 그리고 「資本主義 崩壞論」과 「帝國主義論」의 順으로 說明 드리겠습니다.



「마르크스」는 그의 著書 <資本論>에서, 그의 經濟學說을 体系化 內至는 集大成하였습니다. 그는 「資本論」에서 近代資本主義 社会의 經濟運行法則을 分析 하는데 目的을 두고 그 分析道具로는 唯物論的 弁證法을 活用하였고 分析對象으로는 資本主義 社会의 生成과 發展 그리고 消滅過程을 檢討하여, 資本主義가 必然的으로 沒落하고 그 廢墟위에 社會主義가 樹立된다는 結論을 내렸습니다.

1. 勞動 價值說

「아담·스미스」, 「리카도」

- 「投下 勞動 價值說」
- 商品生産에 投下된 勞動의 量

價 值 決 定

「마르크스」

- 具體的 勞動 → 使用 價值
- 抽象的 勞動 → 交換 價值
(社会的으로 必要的 平均勞動量)

⑥9 勞働 價值說

「마르크스」는 以上の 結論을 導出하기 爲하여 「勞働價值說」과 「剩餘價值說」을 適用하였는바, 그中에서 우선 「勞働價值說」의 主要骨子에 對해서 說明드리 겠읍니다.

「마르크스」의 「勞働價值說」은 일찌기 英國의 「아담·스미스」가 그 研究를 試圖하여 그의 弟子 「리카르도」가 發展시킨 「投下勞働價值說」을 다시 그나름대로 整理한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投下勞働價值說」은 商品生産에 投下된 勞働의 量에 따라 價值가 決定된다는 理論입니다. 例를 들어서 한마리의 고래를 잡는데 所要되는 勞働과 열마리의 사슴을 잡는데 所要되는 勞働量이 같다면, 한마리의 고래와 열마리의 사슴이 서로같은 값어치를 갖고 交換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르크스」는 위의 理論을 士台로 勞働을 具體的 勞働과 抽象的 勞働으로 區別하여 說明하고 있습니다.

具體的 勞働은 쌀이나 보리처럼 人間에게 必要한 物件을 生産하여 「使用價值」를 만들어 주는 것이고, 「抽象的 勞働」은 生産에 投下된 勞働의 量에 따라 「交換價值」를 形成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抽象的 勞働」이 어떻게 價值를 生産하는가에 對하여 「마르크스」는 「社會的으로 必要한 平均勞働量」이란 概念을 使用 하였습니다.

例컨데, 한필의 베를 짜는데 있어서 10時間의 勞働을 必要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3時間을 必要로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나, 平均的으로 勞働者가 그것을 짜는데 있어서 5時間이 걸린다면 그 5時間의 勞働이 곧 베의 價值를 決定한다는 것입니다.

労働 価値説 批判

批判 I

労働の 等質的 取扱 不当

労働の 異質性

- 労働の 質 多様

- 労働量 計算の 不可能

㉚ 勞働價値說 批判

批判 I 勞働의 等質的 取扱은 不當

그러면 勞働價値說의 矛盾點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첫째 「마르크스」는 勞働의 異質的 現象을 等質的으로 取扱하였다는 點입니다.

多樣한 環境속에서는 人間自体가 能力과 素質을 달리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勞働이라는 것도 多樣한 條件속에서 異質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決코 同質的으로 單純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은 너무나 自명한 事實입니다.

모든 經濟的 財貨의 價値가 勞働에 依해서만 決定되고 形成될 수 없음은 勿論 勞働의 質이 多樣하기 때문에 現實的으로 勞働量의 嚴密한 計算은 不可能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과 같이 勞働의 量과 質이 多樣한 社會에서는 勿論이고 「마르크스」가 살았던 그 當時에도 合理的일수 없는 것입니다.

批判Ⅱ

利潤率 平準化 現象 無視

「마르크스」主張의 結果

利潤率

- 輕工業 → 「高」
- 重工業 → 「低」

價值決定 法則

- 價值 + 平均利潤 = 價格

「마르크스」弁明

全体的 平均 → 價值決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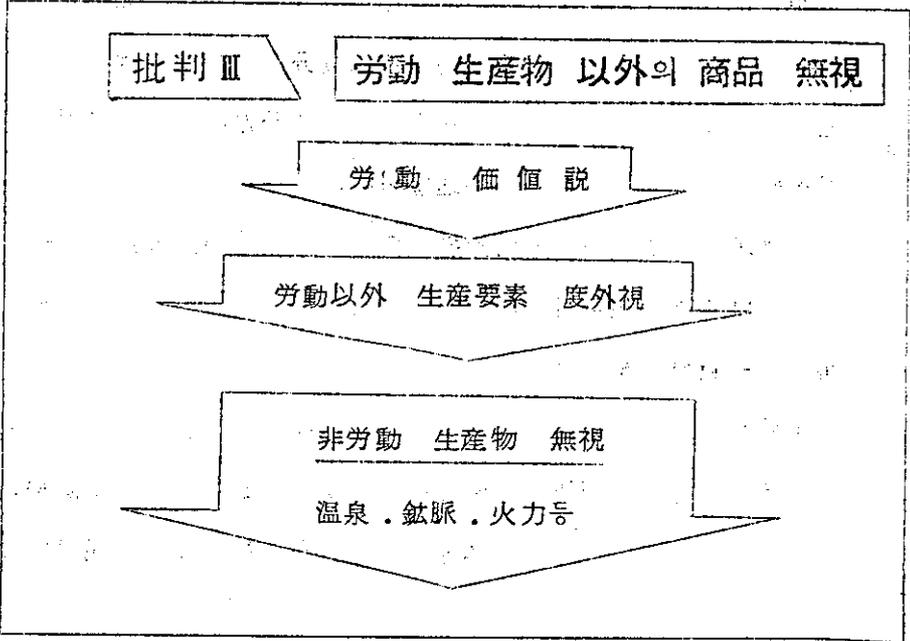
㉠ 批判Ⅱ 利潤平準化 現象 無視

둘째, 勞働 價値說은 近代資本主義社會에서의 利潤率 平準化 現象을 無視하고 있다는 點입니다. 「마르크스」의 主張에 따르면 勞働의 比率이 相對的으로 높은 輕工業分野에서의 利潤率은 높아야 하고 비교적 機械依存度가 높은 重工業分野에서의 利潤率은 반드시 낮아야 한다는 結論에 到達합니다.

이렇게 되면, 投下 勞働量에 依한 價値와 生産費의 平均利潤을 보아야 비로소 現實의 商品價格의 形成된다는 一般의 價値決定 法則과는 一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마르크스」는 一部 商品은 價値以上으로 販賣되고 一部 商品은 價値以下로 販賣된다는 것을 認定하여 價値法則은 個別的으로 妥當치 않으며 全體를 통해 平均적으로 作用한다고 主張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궁색한 辨明에 지나지 않은 平均概念의 盜用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要는 「마르크스」가 需要와 供給關係에 依한 價値變動을 充分히 다루지 못한데서 나타난 當面한 結論이라 하겠습니다.



⑦2 批判Ⅲ 勞動生産物 以外の 商品 度外視

셋째, 勞動價值說은 勞動生産物 以外の 商品을 전혀 度外視하고 있다는 點입니다.

「마르크스」는 價值를 오직 勞動生産物에 限局시키고, 勞動以外の 生産要素는 考慮하지 않았기 때문에 土地나 天然資源인 温泉, 鉍脈, 火力等 非勞動生産物을 전혀 無視하였습니다.

여기에 또한 勞動價值說이 經濟一般論이 되기 어려운 理由가 있는 것입니다.

2. 剩餘價值說

資本主義社會

- 資本家：生產手段 所有
- 勞動者：勞動力 所有

生產手段

+

勞動力

商品 (剩餘價值 包含)

剩餘價值

利潤・地代・利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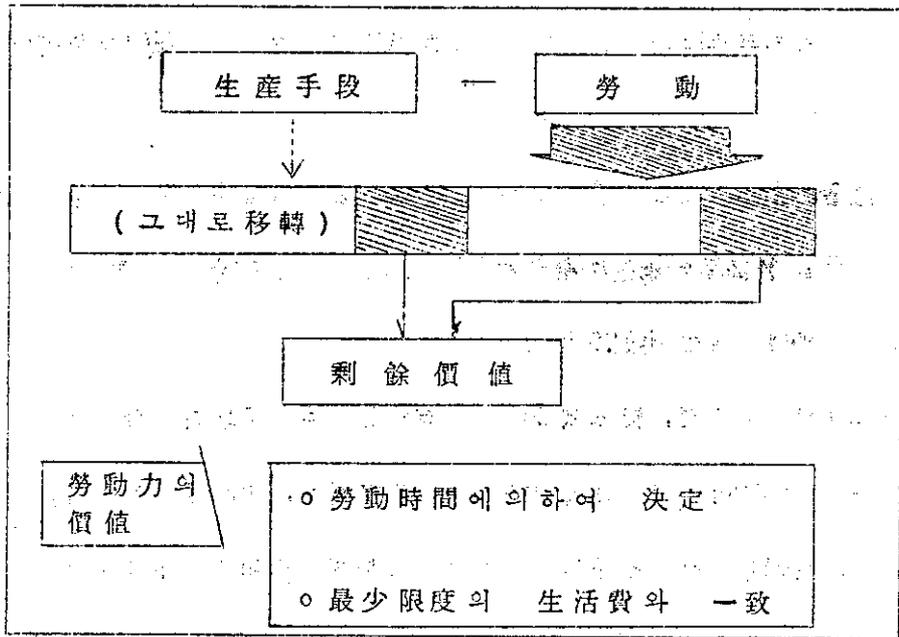
資本家

⑦③ 剩餘價值說 (1)

다음에는 「마르크스」가 주장한 剩餘價值說에 대하여 說明드리겠습니다.

剩餘價值說은 資本主義社會에 있어서는 資本家 階級은 生産手段을 所有하나 勞動者階級은 勞動力을 팔아서 生存을 維持할 수 있다는 것을 前提로 하고 있습니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資本家들이 所有하는 生産手段과 勞動者들이 提供하는 勞動力이 結合하여 商品이 生産되며, 生産된 商品의 價值속에는 生産過程에서 投下된 資本과 勞動의 價値에 比하여 더 많은 超過分の 剩餘價值가 生成되는바 그것이 結果的으로 利潤地代, 利子 등의 形態로 資本家에게 돌아가므로 資本家들은 富의 蓄積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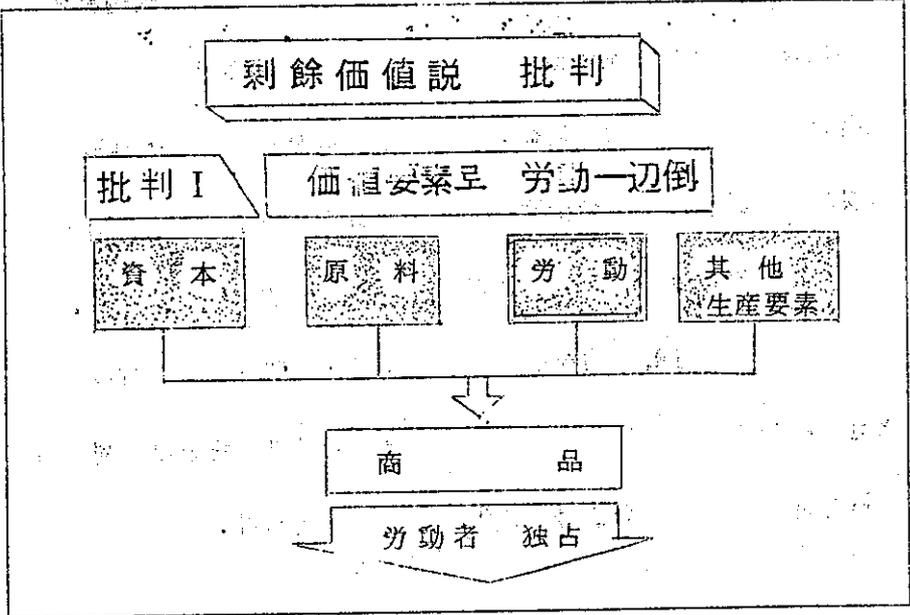


⑦4 剩餘 價值說 (2)

한편 그는 生産要素中 勞動以外的 生産要素는 그 自體의 價値가 勞動生産物에 그대로 移轉될 뿐이나, 勞動力만은 生産過程에서 自體의 價値보다 더 큰 剩餘價値를 生産한다 하였읍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勞動力 自體의 價値는 勞動時間에 依하여 決定되고, 그것도 勞動者들의 最少限度의 生活費와 一致하는 범위를 넘을 수 없는 것이라 하여 勞賃의 固定性を 主張하였읍니다.

이처럼 「마르크스」는 剩餘價値論을 通해서 利潤의 本質을 資本家에 依한 勞動者의 착취관계로 說明하려 하였기 때문에 利潤의 源泉인 私有財産制度의 廢止를 主張하였던 것입니다.



⑦⑤ 批判 I 勞 動 一 辺 倒 (1)

그러면 剩餘價值說이 內包하고 있는 矛盾點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剩餘價值說의 根本的인 問題點은 價值要素를 勞動一辺倒로 解釈하고 있다는 點입니다.

商品을 生産하기 爲해서는 資本 原料, 勞動, 以外에도 企業能力等 其他의 生産要素들이 必要한 點입니다.

資本에 依해 機械나 原料들이 購入되고 勞働者가 雇用되며 其他 生産要素들이 結合하여 비로소 하나의 商品이 生産된다는 것은 一般의 常識化된 事實입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마르크스」는 商品의 價值가 오직 勞働者들의 勞働에 依해서만 創造되는 것이기 때문에, 勞働者가 그 價值를 全部獨占해야 한다고 主張하였읍니다. 그것은 바로 勞働에만 生産性을 認定하고 資本이나 其他의 生産要素의 生産性은 認定하지 않는데 그 理由가 있는 點입니다.

「스탈린」

- 剩餘價值論 : 一般的
- 現代의 經濟法則에 不合當

一部 共產國

- 利潤率 導入 主張
- 小器具의 私有 認定

剩餘價值論의 矛盾性 스스로
認定

76

勞 動 一 辺 倒 (2)

「스탈린」은 1952年 <소련에서의 社會主義經濟의 諸問題>라는 論文에서 剩餘價值論이 너무나 一般的인 것이기 때문에 現代 資本主義經濟에 있어서 基本的인 法則이 될 수 없다하여, 剩餘價值論의 不合理性を 指摘한바 있습니다.

오늘날 一部共産圈에서도 生産의 非能率性を 止揚키 爲한 利潤導入說을 내세우고 있는가 하면 農民들에게 小農具의 私有를 認定함으로써 剩餘價值說의 矛盾性を 自認하기에 이르렀습니다.

批判 II

供給과 需要法則 無視

商品價值 決定
○ 需要供給 法則

生産 要素
供給決定 要素에 不過

「마르크스」 價值論
○ 生産 過程만을 考慮
○ 勞動 時間이 決定

○ 流通 過程에서도 決定

⑦ 批判Ⅱ 供給과 需要法則 無視

둘째, 「마르크스」는 그 價值論에서 商品의 供給만을 問題視하고 需要問題는 全然 無視하고 있습니다.

앞서 說明드린바와 같이, 商品의 價值는 오직 投下된 勞働이나 其他의 生産要素에 依해서만 決定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商品에 對한 需要와 供給에 依해서 價値의 決定이 左右되는 경우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오늘날의 經濟現實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勞働이나 其他의 生産要素는 그 商品의 供給을 決定하는 生産費 構成要素에 지나지 않기때문에 生産費란 商品의 價値를 形成하는데 어느 程度의 影響을 미치는 것은 分明하지만 어떤 商品의 價値를 單獨으로 決定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마르크스」는 利潤은 오직 商品의 生産過程에서 勞働時間에 依하여 決定된다고 主張하므로써 流通過程을 渡外視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商品의 生産量에 比해서 需要量이 많을 때에는 그 商品이 높은 價格으로 팔리기 때문에 流通過程에서 利潤이 發生하는 것은 두 말할것도 없습니다.

또한 같은 商品을 生産하는데 있어도 能率的인 企業은 非能率的인 企業보다 生産費의 節減에 따른 利潤이 發生하게 될것은 自명한 經濟現實일 것입니다.

批判Ⅲ

勞賃の 不変性 主張은 不当

現 実

- 先進資本国 : 勞賃上昇一路
- 労働者貧困 : 資本主義
初期現象

勞 賃 上 昇

- 剩餘價值論의 不当性
立証

⑦ 批判Ⅲ 勞賃의 不變性 主張은 不當

셋째, 「마르크스」는 資本主義體制下에서는 勞動生産性이 向上될지라도 勞動者의 賃金은 最少限의 生活費를 保障하는 線에서 머물러 있다고 主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經濟가 高度로 發達한 先進資本主義國家에서는 勞賃은 勞動生産性과 함께 上昇一路에 있으며, 勞動者의 貧困은 初期資本主義時代에 있어서 人口의 都市集中에 따른 過渡的인 現象에 지나지 않았읍니다.

最近에 들어 先進資本主義國家에서 이른바 「生産性 賃金制」라 하여 勞賃의 上昇率을 勞動生産性의 上昇率과 一致하도록 法的 措置를 取하고 있는 現象에 비추어보아 共產主義者들이 아직도 이진부한 「마르크스」의 剩餘價值論을 내세워 企業家들이 勞動者들의 勞賃을 착취한다함은 時代착오적인 不當性을 立証하는 것이라 하겠읍니다.

批判Ⅳ

노동자의 착취는 共產社会에서

共產社会

剩餘生産物

- 軍事力, 独裁機構 強化에 使用
- 「새로운 階級」의 사치에 活用

「슈잔느·라방」

- 1人当 生産價值 : 750 「루블」
- 1人当 支拂額 : 125 "

- 착취율 : 600 %
- 「마르크스」豫言의 2배

⑦9 批判Ⅳ 労働者の 착취는 共産社会에서 (1)

넷째, 労働者에 对한 착취現象은 오히려 「労働者の樂園」을 만들겠다는 共産社会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共産社会에서의 剩餘生産物은 労働者の 福祉向上을 위해서 使用되지 않고 軍事力強化나 独裁政權維持에 使用되거나 所謂 「새로운 階級」의 사치스러운 生活을 爲하여 탕진되고 있습니다.

共産圈에서 脱出한 「수잔느·라방」은 <共産主義 50年の 現實>이라고 하는 冊子에서 労働者 1人当 生産価値가 月 750 「루블」인데 反해 労働者에게 支給되는 金額은 月 125 「루블」밖에 되지 않는다고 指摘한 바 있습니다.

이를 分析해보면 労働者가 착취당하는 比率은 600%나 되는 것이며 이는 「마르크스」가 資本主義社会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豫言했던 숫자보다 2배나 더한 착취율인 것이다.

北 韓 社 会

金 日 成 証 言

(1962)

- 生 産 額 : 3,000 원
- 支 給 額 : 480~500 원

착취율 : 800 % 以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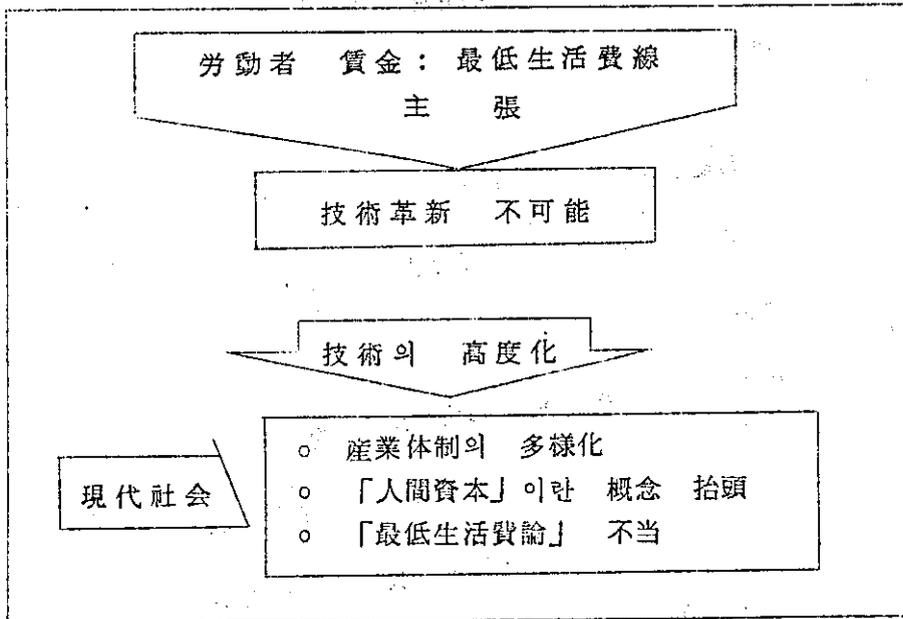
「밀로반 · 질라소」

- 새로운 特權階級 發生
- 새로운 착취관계 形成

⑧ 労働者の 착취는 共産社会에서 (2)

労働者에 對한 착취는 北韓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金日成은 1962年 內閣秘密會議에서 「北韓労働者 1名の 年間 生産額은 3千원이며 労働者에게 支拂되는 賃金은 年間 480 원내지 500 원이다」라고 指摘한 바 있습니다.

이를 分析해 보면 労働者の 착취율은 約 800名 以上이 됩니다. 이같은 事實에 근거하여 「밀로반·질라스」는 共産主義 内部에도 새로운 特權階級이 發生되고 그들에 依하여 새로운 착취관계가 形成되어가고 있다 하였습니다.



⑧① 勞働者の 착취는 共産社会에서 (3)

「마르크스」의 말대로 勞働者の 賃金이 最低生活費線에서 벗어
날 수 없다면, 資本家에 依한 勞働者들의 技術革新이란 想像할
수 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은 社会가 發達하고 産業体制가 날로 多樣化 됨에 따라
서 人間資本이란 概念이 점점 普通化되어가고 있으며 富의 概念
도 物質的富 以外에 「人間에게 응결된 富」가 매우 重視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勞働者는 굶주림에 허덕이는 근육의 勞
働가 아니라 知識과 技術을 가진 人間資本이라는걸 생각할때
「마르크스」의 「最低生活費論」 주장은 不當하기 이를데 없는
것입니다.

3. 資本主義 崩壞論

剩餘價值 獲得

資本家

- 労働時間延長
 - 労賃引下
- 限界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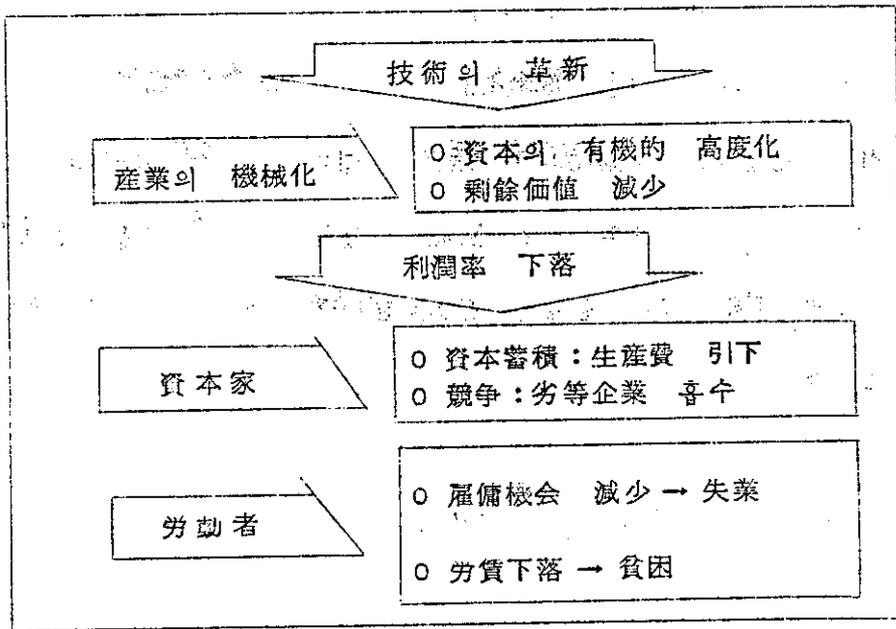
技術革新 置重

労働 生産性 向上

② 資本主義 崩壞論 (1)

다음에는 「마르크스」가 主張하고 있는 「資本主義崩壞論」에
對한 概要를 說明 드리겠습니다.

「마르크스」에 依하면, 資本家들은 보다 많은 剩餘價值를 얻기
爲해서 労働者들의 労働時間을 延長 시킨다든가 労働者들의 勞質을
떨어뜨리게 되나 그것은 모두 限界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大部
分の 경우, 技術革新을 通해서 労働生産性を 높이는 方法을 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⑧3 資本主義 崩壞論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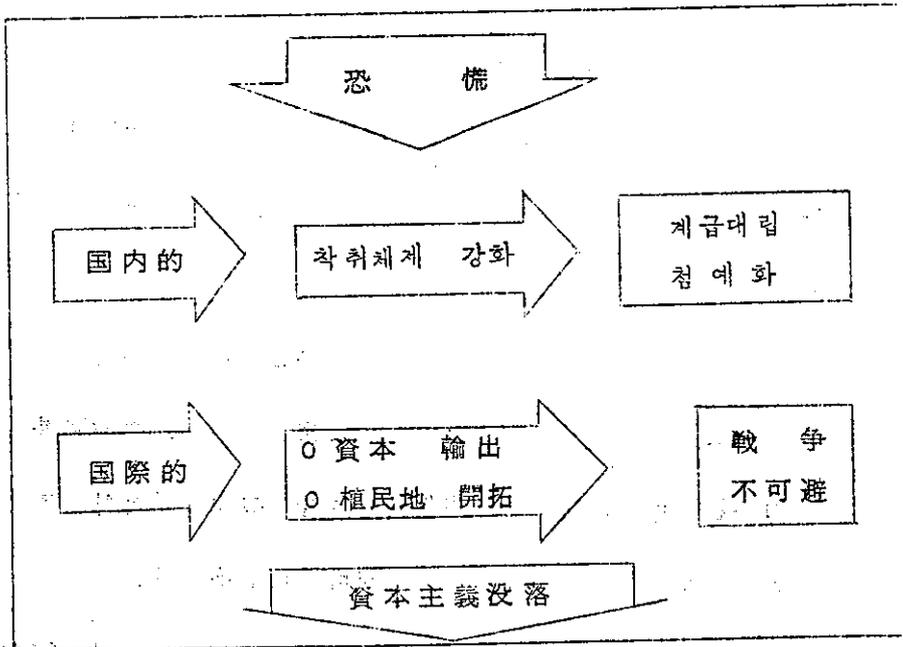
또한 그는 資本家들의 技術革新은 産業의 機械化를 促進시킴으로써 不變資本의 有機的 高度化를 造成하는 反面에, 可變資本인 勞動의 減少現象을 일으킨다 하였읍니다.

이같은 勞動의 減少現象은 勞動에 依하여 發生한다는 剩餘價値를 減少시키게 되어, 結果的으로는 資本家들의 利潤率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資本家들은 利潤率의 下落을 막기 爲해서 資本의 蓄積에 依한 資本의 有機化를 더욱 高度化 시키고, 生産費를 줄이려고 努力하는 한편, 國內의 劣等企業들을 흡수 병합함으로써 獨寡占에 依한 生産量을 擴大 시키게 된다 하였읍니다.

이에 反하여 勞動者들의 경우를 보면, 生産量이 擴大된다 하여도 이는 어디까지나 技術革新 즉 機械化에 依한 것이므로 勞動者들의 고용기회는 機械화된 만큼 減少 됨으로써, 人口의 增加에도 不拘하고 失業者는 늘어나게 되며 결국 勞動者들은 貧困해 질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말해서 資本主義 社會는 資本家들의 大量商品 生産과는 달리, 勞動者들의 貧困에 따른 商品수요가 줄어들음으로서 商品은 산더미처럼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167-



⑧4 資本主義 崩壞論 (3)

以上과 같은 傾向이 長期化되면 資本主義 社會는 過剩生産과 過少消費의 矛盾을 일으켜서 마침내는 경제공황을 招來하게 되고, 이러한 矛盾을 克服하기 爲해서, 資本家들은 國內的으로는 独占結合에 依한 착취체제를 더욱 強化하지 않을수 없게 됨으로써, 自然히 階級對立이 첨예화 되고, 國際的으로는 資本主義 國家간의 海外로의 資本輸出과 海外植民地 開拓을 爲한 競争이 수반되어, 結局 資本主義 國家간의 戰爭이 不可避 하게 되며 終局에는 資本主義가 崩壞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資本主義 崩壞論 批判

批判 I

利潤率 下落이란 空論

理論面

- 靜態的 側面：一時的 下落 現象
- 動態的 側面：
(人間의 嗜好 變化)
(宇宙科學의 發達)

實際面

- 資本主義 國家：高度成長
- 경제침체 現象：共產國家

⑧5 資本主義 崩壞論 批判

批判 I 利潤率下落이란 空論

그러면 「마르크스」의 「資本主義 崩壞論」의 矛盾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첫째, 「마르크스」는 資本主義가 發達됨에 따라 資本家の 利潤率 이 低下된다고 主張한 點입니다.

理論的인 面에서 考察해 볼 때 經濟發展을 一定한 時點을 基準으로 보는 靜態的인 側面에서 보면 投資가 增加됨에 따라서 資本家の 利潤이 一時的으로 低下되는 現象을 일으킬런지 모르나 보다 長期的이고 動態的인 立場에서 보면, 資本家の 利潤率은 얼마든지 上昇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人間の 嗜好가 恆常變化하여 새로운 商品이 開發되고, 이에 對한 需要도 늘어나기 때문이며, 새로운 宇宙産業이나 原子工業等의 發達은 해마다 새로운 高率의 投資를 刺戟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實際面에서 考察해 볼 때, 先進資本主義國家는 利潤率의 下落에 따른 經濟的 여러 矛盾으로 因하여 이미 沒落되었어야 할 것이나, 오히려 高度의 成長을 보이고 있고 沈滯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그들 共産國家들인 것입니다.

批判Ⅱ

一種의 勞動者 煽動論

理論面

- 勞動者：새로운 機械工業에
흡수
- 一時的 現象 → 誇大評価

實際面

- 資本主義初期 → 勞動過剩
- 先進資本主義 → 勞動力 不足

○ 「絶對的」→「相對的 窮乏化 理論」

- 現象과 不一致 -

⑧ 批判Ⅱ 勞働者貧困이란 一種의 勞働者 煽動論

둘째, 共產主義者들은 産業의 機械化에 따른 勞働者의 貧困을 내세워, 勞働者들이 資本家들에게 鬪爭할 것을 煽動하고 있다는 點입니다. 우선 理論的인 面에서 볼 때, 勞働者들이 機械化로 因하여 部分的으로 解雇된다. 하여도 새로운 機械製作工業에 취업할 수 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機械의 發明으로 因하여 一部 勞働者들이 그들의 職場을 當분간 잃는 局部的인 現象을 가지고 모든 勞働者들이 해고되고 窮乏에 허덕이게 된다고 主張한 것은 매우 獨斷적이고 誇張된 判斷이라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實際面에서 볼 때 「마르크스」는 資本主義發展初期의 經濟現象을 分析對象으로 하였기 때문에 오늘날 部分的으로 發展途上의 國家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勞働過剩現象이 일어났을런지 모르지만 工業化의 進展에 따라, 勞働力 過剩狀態로 부터 勞働力不足狀態로 轉換되고 勞賃도 上昇一路에 있음은, 先進資本主義國家의 否認할 수 없는 事實이라 하겠습니다.

例컨데, 오늘날 美國을 爲始한 西歐先進資本主義國家에서 勞働力이 不足하여 우리나라에서만도 每年 醫師와 看護員 그리고 各種技術者를 흡수해가고 있음은, 주지의 事實입니다.

그러하여 共產主義者들도, 그들의 主張인 勞働者들의 「絶對的窮乏化」理論을 배경하고 相對的으로 窮乏化된다는 主張을 하기에 이르렀으나 그것마저도 現實的으로 맞지않는 事實에 있는 것입니다.

批判Ⅲ

恐慌의 發生이란 独断論

實際面

- 不均衡：一時的 現象
- 恐慌으로 沒落한 國家不在
- 不均衡의 持續：共產國家

理論面

恐慌抑制策 講究：國家

- 財政 金融 政策
- 社會 保障 制度
- 其他 自動安全 裝置

恐慌發生 可能性 排除

⑧7 批判Ⅲ 「恐慌의 發生」이란 独断論

세계, 資本主義가 그 發生過程에서, 内部的 矛盾 때문에 生産과 消費의 不均衡이 일어나서 一대 經濟恐慌이 수반 되고 나아가 資本主義가 崩壞된다고 主張한 點은 現代資本主義國家의 努力을 도의시킨 独断論에 지나지 않습니다.

實際面에서 볼 때, 資本主義經濟體制에 있어서 항상 均衡이 維持될 수는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가지 경제침체요소가 작용하여 景氣變動이 나타나는 것은 事實이지만, 그로 因하여 資本主義가 沒落한 나라는 아직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經濟의 持續的인 不均衡은, 資本主義社會보다도, 社會主義社會에서, 더욱 두들어지게 나타나는 現實입니다.

단지 資本主義社會에서는 조그마한 不均衡도 당장에 表面에 나타나는데 反하여 社會主義 統制經濟社會에 있어서는 보다 더 큰 不均衡도 表面化되지 않고 있을 따름입니다.

資本主義國家들이 恐慌抑制策을 講究하고 있음은 周知의 事實입니다. 卽 國家는 財政金融政策을 中心으로한 需要의 調整, 景氣變動을 自動적으로 安定시키는 失業保險이나 社會保障制度 그리고 누진세율의 자동안정장치 등을 活用하여 恐慌의 發生可能性을 事전에 抑制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主張은 經濟恐慌의 發生을 抑制하는 國家의 다양한 機能을 예상치 못한 것이라 하겠읍니다.

4. 帝國主義論

「列寧」

「帝國主義段階」, 資本主義 經濟
分析

帝國主義

- 產業資本主義：競爭的 支配
- 独占資本主義：独占的 支配

- 「資本主義 最後段階」
- 「革命 前夜期」

⑧ 帝國主義論 (1)

끝으로, 共產主義者들이 主張하고 있는 帝國主義論에 對해서 說明 드리겠습니다.

「레닌」은 「마르크스」와 「엔겔스」의 學說을 이어받아 이른바 帝國主義段階에 있어서 資本主義的 經濟의 諸般實態를 分析하였습니다.

「레닌」은 競爭이 支配하는 産業資本主義가 漸次的으로 独占이 支配하는 独占資本主義 即 帝國主義로 發展되며, 이 帝國主義가 資本主義의 最後의 段階이며 社會主義革命의 前夜期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帝國主義란?

1. 巨大 企業체의 独占体 形成
2. 金融寡頭体制 形成
3. 資本 輸出로 植民地 강박
4. 國際 独占体 形成 및 世界 分割
5. 植民地 爭奪戰 展開

國際平和 不在

⑧ 帝國主義論 (2)

「레닌」은 帝國主義의 特徵을 다음과 같이 說明하였습니다.

첫째, 巨大企業체가 中小企業을 從屬化하여 生産은 勿論 市場과 價格을 独占化하게 되며

둘째, 銀行資本이 産業資本과 結託하여 金融寡頭體制를 形成하게 되며

셋째, 商品輸出보다 資本輸出에 重點을 둠으로써 後進國의 植民地化를 이룩하고

넷째, 國際独占체가 形成됨으로써 世界分割이 이루어지며

끝으로, 資本主義 列強사이에 植民地爭奪戰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世界的 規模의 戰爭이 不可避하고, 資本主義가 存在하는 限 國際平和는 결코 存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帝國主義論 批判

批判 I 架空의 段階設定

「마르크스」式 歷史觀

独占資本主義
段階의 架空

- 「트로츠키」의 反論
- 大企業化와 独占資本主義混同
- 國家機能度外視：無政府狀態
假想

⑨〇 批判 I 架空의인 段階設定

그러면 帝國主義論의 虛構性과 그 矛盾性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첫째, 帝國主義論은 「마르크스」式 歷史觀이 가지는 理論의 貧困性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바, 「独占資本主義段階」라는 概念 그 자체가 架空의인 것입니다. 소련의 亡命者인 「트로츠키」는 그의 著書 <超帝國主義論>에서 「레닌」의 「独占資本主義段階」에 대해서 資本主義의 한 「過程」이 아니라, 資本主義의 한 「政策」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여 「레닌」의 帝國主義論에 反論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勿論 境遇에 따라서는 資本主義國家에서 大企業이 盛行한 것도 事實이긴 하지만, 大企業化 現象과 独占化 現象은 그 概念이 一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만일 共產主義者들이 大企業化의 現象을 独占現象과 混同하여 「独占資本主義」를 主張하였다면 이는 分明 理論上的 重大한 誤謬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資本主義社會의 「國家」機能을 전혀 無視하고 國家의 調整的 機能이 마비된 無政府狀態를 가상하였다는 데도 論理上的 虛點이 있는 것입니다.

批判 II

一種의 後進國 煽動論

金融寡頭
体制의
虛構性

- 資本의 銀行 依存度 低下
- 株式公募：家計費中 貯蓄金
- 勞動者等 小市民 投資擴大

植民地
開拓論의
虛偽性

- 先進資本主義：無償援助 提供
- 長期低利 公共借款 供与
- 后進國 工業化 支援

住民煽動・離間
世界赤化

⑨ 批判Ⅱ 一種의 後進國 住民의 煽動論

둘째, 帝國主義論은 現實과 一致할 수 없는 一種의 後進國住民의 煽動論에 不過합니다.

共產主義者들은 金融寡頭體制가 資本主義의 末期에 일어난다고 主張하고 있으나 그의 虛構性은 다음의 事實에서 立証됩니다.

오늘날 企業의 資金調達方法을 보면, 各國의 實情에 따라 多少의 差異는 있어도, 資本主義가 發達할 수록 資本의 銀行依存度가 점차 낮아지는 傾向에 있습니다.

이것은 株式의 公募를 통한 一般國民의 家計費中 貯蓄金을 企業 資金으로 吸收하는 傾向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勞働者 等 小市民의 投資가 점차 擴大되어가고 있음을 立証하는 것입니다.

또한 共產主義者들은 資本主義國家들이 原料의 供給이나 市場의 擴大를 爲해서 植民地開拓을 하게 된다고 主張하고 있으나, 그의 虛爲性은 다음의 事實에서 立証됩니다.

오늘날 先進資本主義 國家들은 後進國 國家에 對하여 無償援助를 하고 있을뿐 아니라 長期的인 低利公共借款을 提供하고 있으며, 國際金融機關을 통한 後進國工業化에 最大의 便宜를 提供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共產主義者들이 資本主義國家에 對하여 寡頭金融制나 植民地開拓을 爲한 資本輸出을 한다느니 하는것은 先進國과 後進國의 住民들을 煽動, 相互 離間시킴으로써 그들의 窮極目標인 世界赤化를 성취하려는 一種의 後進國 住民煽動論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批判Ⅲ

戦争 不可避論의 虚構性

戦争의 原因

過去

- 国家間의 利害 对立
- 民族間의 敵對感
- 宗教上의 갈등
- 指導者의 往服慾

(個別的)

現代戰

共產国家 誘發

- 1950 : 韓國動亂 ○ 1956 : 「헝가리」反蘇鬪爭
- 1968 : 「체코」의 自由化 탄압
- 1969 : 中蘇 国境紛爭 ○ 現在의 越南戰

⑨2 批判Ⅲ 戦争不可避論의 虚構性

셋째 「레닌」이 經濟的인 世界分割로 말미암아 資本主義 列強사이에 戦争이 不可避하다고 主張한 點입니다. 戦争이라는 事態가 人類 歷史上에 屢번히 일어났었다는 것은 周知의 事實이나, 그 原因은 대개의 경우 國家間의 利害의 對立, 民族間의 敵對感情, 宗教上의 갈등 政治指導者의 征服慾 等に 起因되었음을 누구도 否認하지 못할 것입니다.

특히 第二次 大戦以後에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 戦争은 共產主義者들에 依하여 유발되었다는 事實입니다.

예를 들어서, 1950年 韓國의 6.25 動亂, 1956 「헝가리」 反蘇 鬪爭, 1968年 「체코」의 自由化強壓, 1969年 中·蘇 國境分爭 그리고 越南戰 等이 모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不拘하고 共產主義者들이 모든 戦争의 原因을 經濟에서 찾는다는 것은 너무나 常識에 벗어난 主張이라 아니할 수 없읍니다.

批判Ⅳ

새로운 赤色 植民主義 登場

政治的

- 領土 : 684,300 km²
- 人口 : 2,500 万名

經濟的

- 東独 : 45 億「달라」
 - 「루마니아」 : 20 億「달라」
 - 만주 : 20 億「달라」
- } 85 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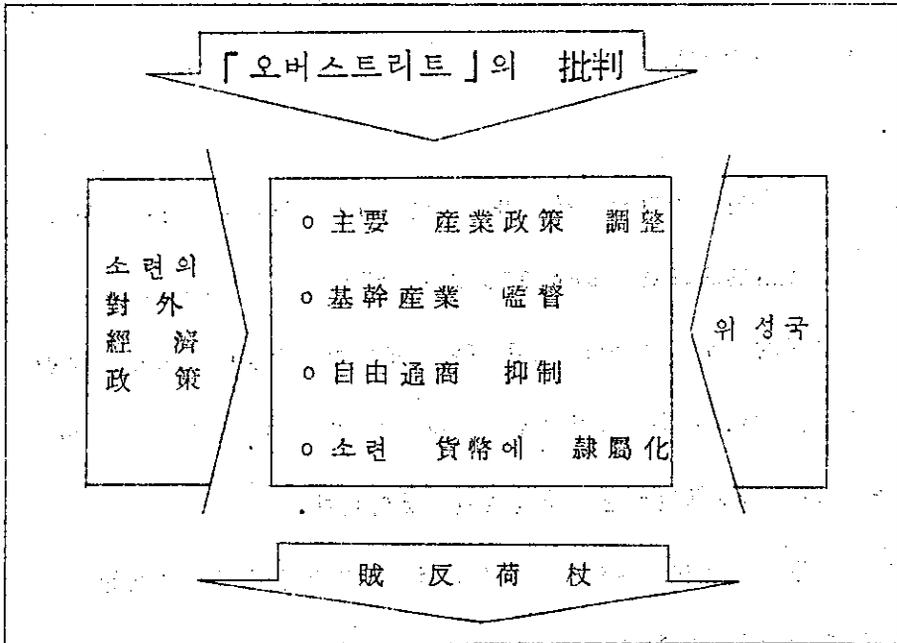
自立的 經濟体制 抹殺

⑨3 批判Ⅳ. 새로운 赤色 植民主義登場 (1)

넷째, 共產主義者들은 資本主義國家들이 植民地政策을 쓰고 있다고 하나 오히려 그들이야말로 새로운 赤色植民地政策을 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共產黨의 宗主國인 소련의 경우를 보면 1939년부터 1949년까지의 期間에 政治的으로는 684,300 ㎞²의 領土와 2,500 萬에 가까운 人口를 強制的으로 그들의 支配下에 넣었고, 經濟的으로는 東獨으로부터 45 億달러, 「루마니아」로 부터 20 億달러, 滿洲에서 20 億 달러等 都合 85 億달러를 수탈했던 것입니다.

그밖에도 많은 經濟的 利權을 박탈하여 衛星國家들의 自立的 經濟體制 運營能力을 抹殺하고 말았습니다.



94 批判Ⅳ 새로운 赤色植民主義 登場 (2)

일찌기 共產圈 專門家로 널리 알려진 美國의 「오버스트리트」는 「코메콘」을 中心으로한 소련의 對外經濟政策을 다음과 같이 批判한바 있습니다.

첫째, 衛星國家의 主要産業政策을 調整하여 소련이 지정해 준 商品만을 過剩生産토록 하며

둘째, 衛星國의 基幹産業을 監督하는 管理者 顧問 그리고 專門家들을 任命하고,

셋째, 衛星國家와 資本主義國家와의 通商을 監督하며,

끝으로, 衛星國의 銀行을 掌握함으로써 現地通貨를 소련의 「루블」化에 豫속토록 하고 있다는것 등입니다.

이처럼 共產主義者들은 그들의 主張과는 달리, 새로운 赤色植民地 政策을 쓰고 있어 賊反下杖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小 結 論

①

共產主義者들은 勞動價値說을

信奉하므로써 經濟現象을 歪曲

分析하고 矛盾을 은폐 시키기 위

하여 變則的인 政治理論을 造作

하기에 及及하였다.

⑨ 小 結 論 (1)

只今까지 共產主義 經濟理論의 概要와 그 理論의 矛盾性 그리고 虛構性을 살펴 보았습니다.

이를 整理해 보면 다음과 같은 結論을 導出해 낼 수 있습니다.

첫째, 共產主義者들은 勞動價値說을 信奉함으로써 經濟現象을 歪曲 分析하고 그 矛盾을 은폐시키기 爲하여 各種 變則的인 政治理論을 조작 하기에 급급하였습니다.

②

「마르크스」는 生産過程만을 重視

하고 流通過程을 전혀 考慮하지

않으므로, 理論과 現實이 一致

할 수 없다.

⑨6 小 結 論 (2)

둘째, 「마르크스」는 生産過程만을 重視하고 流通過程을 전혀
도외시 함으로써 剩餘價値論은 現實과 一致할 수 없습니다.

共産主義者들은 「마르크스」의 剩餘

③

價値說을 資本家の 私有財産을

奪取하는 데만 活用하고 있을 뿐,

그들의 經濟現實에는 適用치 않고

있다.

⑨ 小 結 論 (3)

세째, 共産主義者들은 「마르크스」의 剩餘價値說을 資本家の 私有 財産을 탈취하는데만 活用하고 있을 뿐, 그들의 經濟現實에는 適用 치 않고 있습니다.

共産主義者들은 資本主義가

④

붕괴되고 「必然的」 社會主義가

到來한다 하나

오늘날 經濟的 침체를 거듭하는

것은 오히려 共産國家들이 것이다.

⑨ 小 結 論

네째 共產主義者들은 資本主義가 붕괴 되고 必然的으로 社會主義가 到來한다. 하나 오늘날 經濟的 沈滯를 거듭하고 있는 것은 자본주의 國家가 아니라 오히려 共產國家들인 것입니다.

共産主義者들은 資本主義가

⑤

發展하면 勞働者는 貧困해 진다.

하여 勞働者 革命을 煽動하고

있다.

② 小 結 論 (5)

다섯째, 共產主義者들은 資本主義가 發展하면 勞働者가 貧困해
진다하여 富의 쟁취라는 口實下에 勞働者 革命을 煽動하고
있읍니다.

「마르크스」의 恐慌發生의 豫言

⑥

은 國家의 機能을 自由 放任主義

時代의 것으로 錯覺한데서 나타난

獨斷이다.

⑩ 小 結 論 (6)

여섯째, 「마르크스」의 經濟恐慌 發生의 豫言은 國家의 機能을 自由
放任主義 時代의 것으로 錯覺한데서 나타난 獨斷論 입니다.

帝國主義論은 先進 資本主義

⑦

國家와 後進國을 離間시켜 世界

赤化를 노리는 一種의 後進國 住民

煽動論이다.

⑩ 小 結 論 (7)

일곱째, 共產主義者들이 主張하고 있는 帝國主義論은 資本主義國家와 後進國을 離間시켜 그들의 世界赤化 目的을 達成하려는 一種의 後進國 住民 煽動論입니다.

오늘 날의 帝國主義는 資本

⑧

主義 國家가 아닌 바로 그들

共產國家들이 다.

⑩ 小 結 論 (8)

여덟째, 오늘날의 帝國主義는 資本主義 國家가 아닌 바로 그들
共産國家 들인 것입니다.

오늘날 共産圈 内部에서는

⑨

「새로운 착취階級」이 抬頭

되고 있다.

⑩3 小 結 論 (9)

아홉째, 오늘날 共産圈 内部에서는 새로운 착취계급이 抬頭되고 있습니다.

結論的으로 共産主義者들은 그들의 主張과는 달리, 經濟理論을 現實 否定的 論理로 一貫시키고, 革命 煽動 내지 世界赤化의 手段으로 惡用하고 있다 하겠읍니다.

맺 는 말

共産主義 理論의 矛盾

사회질서 개선 < 근본적 分析 방법 > 理解不足
人間的 역할

現實의 公産국가

少數의 共産主義 선동자에 의한 暴力的 行爲
의 所産

不合理的 非情의 全体主義 社会志向

지금까지 共產主義 發生의 背景으로 부터 共產主義의 基本哲學, 政治 그리고 經濟理論과 實際에 關하여 살펴 보았습니다.

共產主義者들은 社會秩序를 改造하고 보다 나은 社會建設을 約束하며 그에 따른 理論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러나 共產主義 理論은 社會秩序에 對한 根本的 分析方法과 秩序를 만들어 내는데 必要한 人間의 役割에 對한 理解가 없이 定立되었다는 점에서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 본것과 같은 많은 矛盾點이 나타나게 된것입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비록 社會主義革命이 소련과 中共을 비롯하여 기타 群少國家에서 成就되었다 하지만 이 나라들은 모두가 資本主義가 成熟된 나라도 아니거니와 「마르크스」가 豫言한 것처럼 「必然的 歷史의 발전」에 따른 共產化 過程을 밟은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小數의 共產主義 煽動者와 狂信者들의 政權奪取를 爲한 暴力的인 行動의 結果였을 뿐이었고 「마르크스」의 豫言과는 달리 「地上의 樂園」이라기 보다 不合理한 非情의 全體主義的인 社會를 이루어 놓았습니다.

共產全体主義 特性

1. 官制 教理 所持
2. 官僚組織으로 政權 구성
3. 共産党에 의한 政治
4. 暴力과 恐怖가 大衆統制 手段
5. 通信 및 宣傳手段의 独占
6. 軍事力 独占
7. 中央 集權的 經濟体制
8. 反知性 主義

105 全體主義의 特性

그러면 이러한 全體主義的인 共產社會의 共通的인 特性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모든 人民에게 믿음을 強要하는 소위 「官制敎理」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만들어낸 사람이 最高 支配者가 되고 있다는 點입니다.

둘째 官僚組織으로 強力한 中央集權的 政權을 構成하고 있다는 點이며

셋째 狂信的인 權力, 「엘리트」로 構成된 共產黨이 絶對的 權力을 行使하고 있으며

넷째 大衆統制의 手段으로서 暴力과 恐怖를 行使하고 있으며

다섯째 住民에 對한 思想統制를 爲하여 通信과 宣傳手段을 獨點하고 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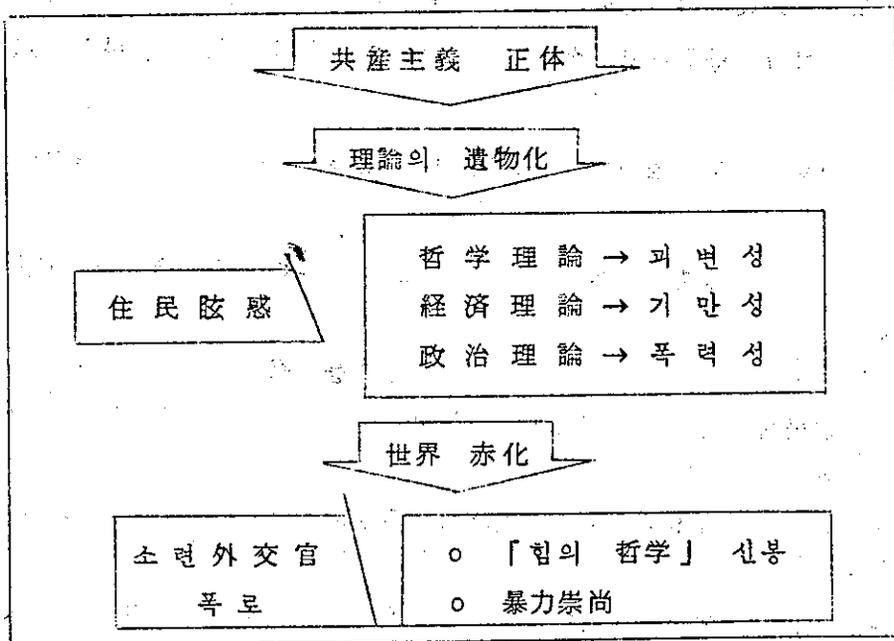
여섯째 莫強한 軍事力으로써 大衆의 意思表示를 철저히 封鎖한다는 點이며

일곱째 強力한 中央集權的인 經濟統制를 通해 國民의 生活을 犧牲시키고 있으며

끝으로 反知性 主義를 通해 國民의 無知를 強要하고 있다는 點들입니다.

結局 모든 人間을 하나의 틀에 박힌 敎理에 劃一的으로 집어 넣으려는 共產社會의 全體主義的 試圖는 對內的으로는 封鎖的이고 統制的인 社會로 轉落시켰고 對外的으로는 妥協을 모르는 好戰的이고 挑發的인 性格으로 變質시켜 놓았습니다.

이는 全體主義的 「이데올로기」의 必然的인 結果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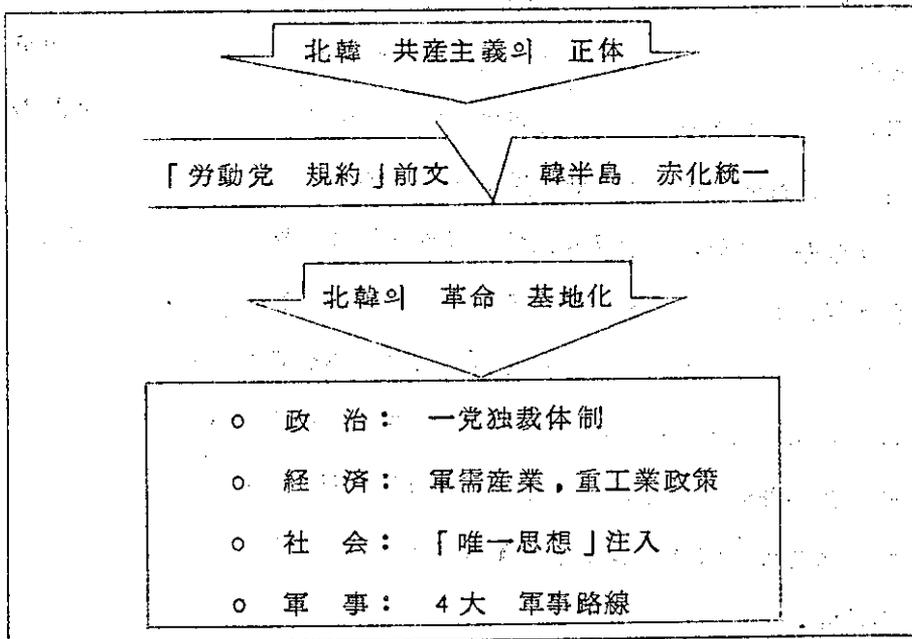


⑩ 共産主義의 正體

그러면 共産主義의 正體는 무엇이겠습니까? 共産主義 理論이 現代社會에 있어서 이미 진부한 遺物이 되어 버렸음은 앞서 說明드린바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말해서 哲學理論은 하나의 꾀변이요, 經濟理論은 勞動者들을 기만하기 爲한 煽動論이며, 政治理論은 暴力使用의 妥當性을 내세우려는 것으로 要約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궁극목표인 世界赤化를 爲하여 이 理論들을 我田引水格으로 有效적절하게 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찌기 「버마」에서 脱出한 소련 外交官이었던 「카즈나 체프」도 共産主義者들이 그들의 궁극목표를 達成하기 爲하여 힘의 哲學을 信奉하면서 힘의 培養에 全力을 傾注하고 있으며 힘이 축적되면 暴力에 依한 革命을 貫徹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폭로한 바 있습니다.



⑩ 北韓 共產主義의 正體

그러면 우리와 對峙하고 있는 北韓共產主義의 正體는 무엇이겠읍니까?

北韓 共產黨은 그의 투쟁路線을 뒷받침하는 黨規約 前文에서 「朝鮮勞動黨의 當面目的은 共和國 北半部에서의 社會主義의 完全한 勝利를 保障하며 全國的 範圍에서 反帝 반봉건적 民主主義 革命의 課業을 遂行하는데 있는 것이며 最終目的은 共產主義社會를 建設하는데 있다」고 明白히 規定짓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事實은 北韓의 窮極적인 目標가 全韓半島의 赤化統一에 있으며 그 內容은 南北의 分斷狀態下에서 北을 支配하며 南韓을 北의 支配領域에 넣으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러한 目標를 達成하기 爲하여 南韓에 革命을 輸出할 수 있는 確固한 革命 基地로서 自體의 政治, 經濟, 社會, 그리고 軍事的 強化策을 斷行하여 왔읍니다.

즉 金日成을 中心으로한 黨獨裁體制를 強力히 構築해 놓았고, 둘째 軍需産業 爲主의 重工業政策을 強行해 왔으며 셋째 金日成 唯一思想을 強制的으로 注入하는 한편 여러 組織을 通하여 住民統制를 強化하였읍니다.

끝으로 4大軍事路線에 立脚한 戰爭準備를 完了하고 南韓赤化의 時期만을 노려왔던 것입니다.

对南战略

「三大力量 培养」

- 北韓→革命基地化
- 國際→革命 支援力量糾合
- 韓國→革命 同調勢力組織

主要 攻擊 对象

- 韓國民의 反共精神
- 韓美間의 유대
- 韓日關係의 正常化

이와같은 全韓半島의 赤化統一을 目標로 北韓 共產主義者들은 어떠한 戰略을 구사하고 있는가?

그들은 赤化統一을 하나의 革命課題로 斷定하고 革命的 決定的 時期的 造成을 위하여 소위 三大力量培養에 能動的으로 對處해 왔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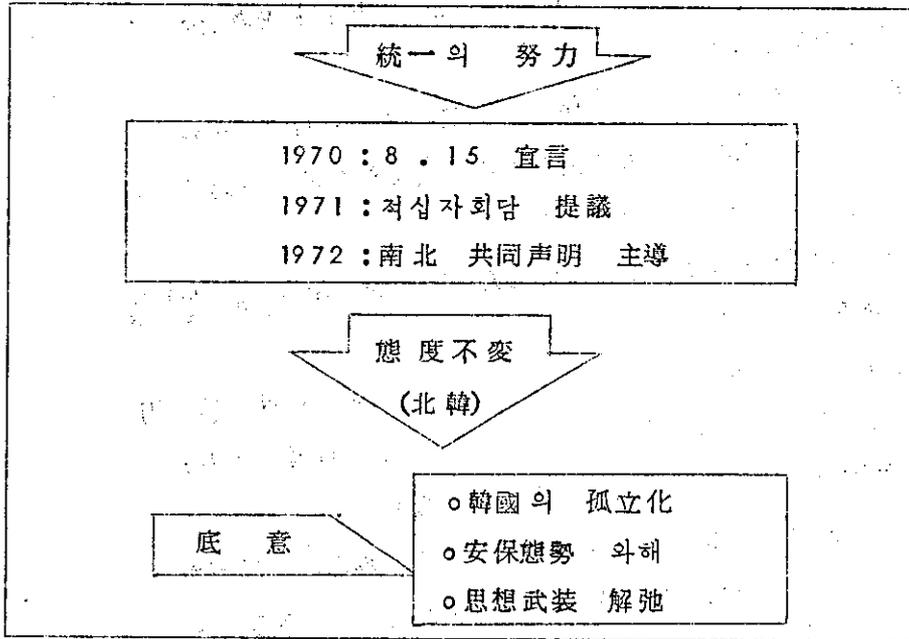
첫째로 北韓을 對南革命基地로서 社會主義 建設을 徹底히 한다음 革命輸出力量을 備蓄해 놓고

둘째로 國際共產集團에 依한 南韓革命支援力量을 糾合하며 이 兩 大 革命力量의 強化下에 궁극적으로 南韓內의 革命 同調 勢力을 組織化하여 大韓民國의 전복에 注力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韓國內의 革命 同調 勢力의 主力軍으로 判斷한 韓國의 勞働者들이 그 누구보다도 徹底한 反共精神으로 武裝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革命戰略에 決定的인 蹉跌을 주었던 것입니다.

특히 그들은 「南韓革命」의 強化를 위한 主要 攻擊對象으로 美國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같이 美國을 革命的 攻擊對象으로 보고있는 것은 韓美間의 굳건한 紐帶關係가 韓國의 共產化革命에 決定的인 障礙가 된다고 評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1969年 11月の 「닉슨」, 「사토」共同聲明 以後에는 日本을 소위 美帝의 一環으로 보고 南韓革命의 主된 障礙要素로 보고 있습니다.



⑩ 南北對話

이상과 같은 北韓共產主義者들의 끈질긴 對南赤化의 企圖에도 不拘하고 우리는 分斷된 組國의 平和的 統一을 위한 基本構想으로서 1970年, 「8.15 宣言」을 천명하였고 이어 1971년에는 南北으로 離散된 家族의 苦痛을 덜기 爲하여 赤十字會談을 提議하였으며

1972년에는 平和統一을 爲해서는 무엇보다 韓半島의 緊張緩和가 先行되어야 한다는 崇高한 使命感에 「南北共同聲明」을 主導하기에 이르러 必로 南北關係는 歷史的인 轉換點에 서게 되었읍니다.

이와 같은 우리 政府의 꾸준하고 진지한 統一 努力으로 이루어진 南北對話에 임하는 北韓 共產主義者들의 態度는 과연 어떠합니까?

그들은 7.4 共同聲明이 發表되기 하루前인 7月3日 平壤 放送을 통해서 「南韓革命이 統一의 先行條件이며 南韓革命과 統一問題의 共通性은 南韓地域에서 美國을 몰아내는 것을 先行條件으로 한다」고 強調하였읍니다.

그後 南北對話가 진지하게 進展되었을때도 그들은 一面 平和攻勢를 펴나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南北對話의 戰術的 活用に 급급하였읍니다.

韓半島의 共產化를 目標로 한 所謂「人民 解放戰略」이라는 基本態度에도 何等의 變化를 보이지 않았읍니다. 金日成의 73年度 新年辭에도 뚜렷이 4大軍事路線을 繼續強化한다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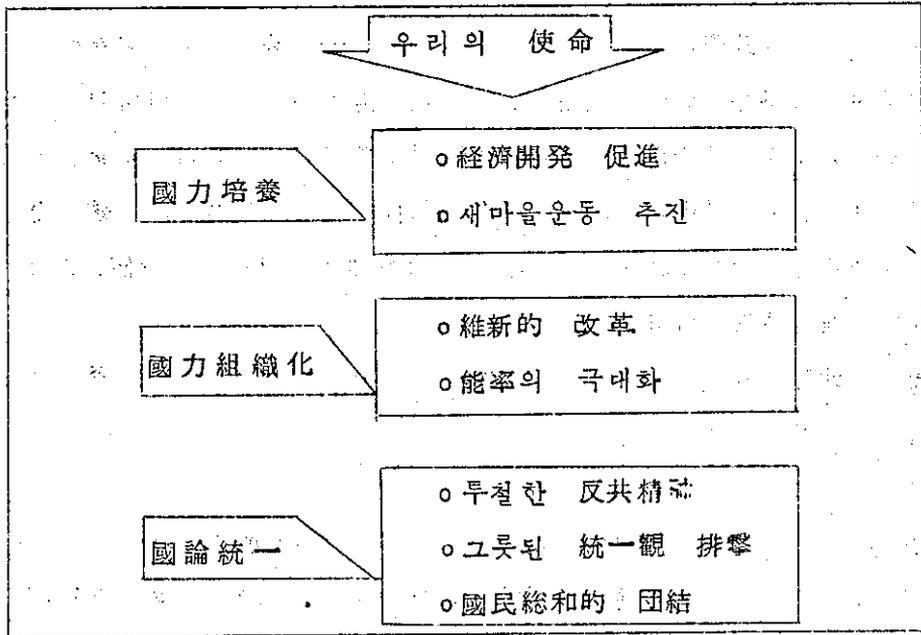
다시 말해서 그들의 基本강령은 變質되지 않고 다만 때와 場所에 따라서 行動 강령만을 變更시키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企圖하는바 對南戰略의 當面目標는 무엇이겠읍니까?

첫째 韓國을 國際적으로 孤立시키자는 것이며

둘째 偽裝平和攻勢를 展開함으로써 韓國의 安保態勢를 瓦解시키고

셋째 韓國의 反共을 主軸으로한 思想武裝을 解弛시켜 그들의 同調努力을 扶植시키자는 것 등으로 判斷되는 것입니니다.



⑪⑩ 우리의 使命 (1)

그러면 이 歷史的인 일대 轉換點에서 우리가 遂行해야 할 神聖한 責務와 使命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北韓共產主義者들이 감히 넘나 볼 수 없도록 경제개발을 촉진 하고 새마을 운동을 추진하여 우리의 힘을 하루속히 培養하는 일이며,

다음은 北韓共產主義者들이 赤化統一의 野慾을 完全히 포기하도록 우리의 힘을 튼튼히 組織化하여 維新的 改革과 能率의 極大化를 꾀하는 일이며

끝으로 온 國民이 共產主義의 선전에 현혹됨이 없이 共產主義의 正體를 올바르게 알고 투철한 反共精神으로 武裝하며 그릇된 統一觀을 배격하여 國民總和的 團結을 이룩하는 일 등입니다.

民 主 統 一

- 卷 -

⑪ 우리 의 使命 (2)

그리하여 우리 온 國民의 夙願인 民主統一을 기필코 이룩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끝)

